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시간 표현 문법 교육 연구

2012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포 문 수

HANSUNG UNIVERSITY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박선옥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시간 표현 문법 교육 연구

The study of the teaching method of Korean tense system for Chinese

201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포 문 수

HANSUNG UNIVERSITY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박선옥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시간 표현 문법 교육 연구

The study of the teaching method of Korean tense system for Chinese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포 문 수

HANSUNG UNIVERSITY

포문수의 문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HANSUNG UNIVERSITY

국 문 초 록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시간 표현 문법 교육 연구

The study of the teaching method of Korean tense system for Chinese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포 문 수

본고는 중국의 교육체계에서 중국어 학교문법 교육을 이수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의 시간 표현 문법 요소를 교육하는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탐색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고는 외국어 학습의 난이도는 피교육자의 언어 환경이 학습하고자 하는 언어와 얼마나 유사한가에 있다고 보고, 중국어의 동작의 시점 표시인 태의 개념과 한국어의 시간표현과의 비교 · 대조 분석을 통하여 중국인들의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의 실마리는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교육의 매개체는 교재를 통하여 실현된다는 가정 하에, 현재 시중에 출판되어 있는 한국어 교재의 시제 부분이 중국어 학습자를 위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었는가, 한국어 시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오류가 보이는 부분에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한국어 시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들에 관해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단계에 따른 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어의 과거시제는 선어말어미 '-었-'에 의해 실현되고, 이것은 중국어의 완료태, 변화태, 경험태로 치환될 수 있다. 이 과거시제 선어말어미는, 특정 동사와 결합하여, 과거시제가 아닌 현재시제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학계에서 이는 선어말어미 '-었-'의 완료의 성질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으나, 본고에서는 그 원인이 선어말어미와 결합하는 동사 고유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는 중국어 시제에서, 비슷한 부류의 동사들과 결합하는 조사(助詞)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면, 공통되는 특성이 발견되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동사의 특성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었었-'이라는 시간 표현 요소가 있고, 관형사

형어미인 '-던' ,'-ㄴ-'이 있다. 과거를 나타내는 '-더-'의 용법과 그 교육 방법의 대안에 관해서는 '-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교재 구성과 직결 된다고 보아, 4장 교재 구성 부분에서 다루면서, 교재 구성 방안과 연결시켰다.

한국어의 현재시제는 '-는/ㄴ/∅-' 에 의해 실현된다. 과거시제와 마찬가지로 특정 동사는 '-는/ㄴ/∅-' 과 결합하여 미래시제를 표시하기도 하고, 어떠한 동사는 현재시제에서 동작과 상태의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는 동사의 특성에 그 원인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한국어의 미래시제는 '-겠-'을 통해 실현되는데, '-겠-'은 추측, 확신, 예정. 의지 등의 양태로 사용되고 미래로 쓰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각 양태별로 시제가 한정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 상당수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들에서 '-겠-'에 대한 설명 방법은 1인칭 주어 구문에서는 의지를 나타내고, 3인칭 주어 구문에서는 추측의 양태를 나타낸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1인칭 주어가 쓰인 구문의 의미가 양태일 확률을 나타내는 것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논의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간 표시 비교를 하고 한국어 시제의 특징적 모습을 살펴, 이것을 기준으로 중국인 대상의 한국어 교재의 시간 표현 문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존 교재와는 다른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어 급별 시간 표현 문법 교수 자료 구성의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핵심어】 한국어 시제, 중 · 한 시간 표현, 선어말어미, 관형사형어미, 한국어 교재 개선 방안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 대상과 방법 ····· 3
제 3 절 선행 연구 ····· 5

제 2 장 한국어와 중국어으 시간 표현 문법 대조 ····· 9

제 1 절 과거 시간 표현 문법 대조 ····· 13
제 2 절 현재 시간 표현 문법 대조 ····· 23
제 3 절 미래 시간 표현 문법 대조 ····· 25

제 3 장 중국인 대상 한국어 교제의 시간 표현 문법 분석 ·· 30

제 1 절 과거 시간 표현 문법 분석 ····· 32
제 2 절 현재 시간 표현 문법 분석 ····· 37
제 3 절 미래 시간 표현 문법 분석 ····· 38

제 4 장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시간 표현 문법 교육 자료 구성 ····· 42

제 1 절 과거 시간 표현 문법 교육 자료 구성 ····· 42
제 2 절 현재 시간 표현 문법 교육 자료 구성 ····· 59
제 3 절 미래 시간 표현 문법 교육 자료 구성 ····· 65

제 5 장 결 론 ····· **70**

【참고문헌】 ····· 72

1.국내문헌 ····· 72
2.분석자료 ····· 74
3.중국원문자료 ····· 74

ABSTRACT ····· 75
中文摘要 ····· 78

HANSUNG UNIVERSITY

【 표 목 차 】

[표 1] 한국어 시간 표현 문법 요소 ····· 12
[표 2] 중국어 태의 종류 ····· 12
[표 3] 한국어 동사 특성별 분류 ····· 18
[표 4] 중국어 경험태와 한국어 '-었었-'의 비교 ····· 20
[표 5] 어미(語尾)의 위치 선후 관계 ····· 21
[표 6] 한국어와 중국어의 과거 시간 표현 ····· 222
[표 7] '-겠-'의 용법과 특징 ····· 26
[표 8] 시간을 표현하는 관형사형어미 ····· 29
[표 9] 분석 대상 중국어판 한국어 교재 목록 ····· 31
[표 10]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p.142) 연습문제 ····· 35
[표 11] '-었-'의 설명을 위한 유의사항 ····· 43
[표 12] 선어말어미의 결합 순서 ····· 44
[표 13] '-었-'의 단계별 교육 자료 구성 방안 ····· 45
[표 14] '-었었-'의 단계별 교육 자료 구성 방안 ····· 50
[표 15] 한-중 과거 시간 표현 문법 요소 대응 ····· 53
[표 16] '-더-'의 단계별 교육 자료 구성 방안 ····· 55
[표 17] 관형사형어미 '-(으)ㄴ', '-던'의 단계별 교육 자료 구성 방안 ····· 57
[표 18] 선어말어미 '-는/ㄴ/∅-'의 단계별 교육 자료 구성 방안 ····· 61
[표 19] 현재 시간 표현 교육 자료 보충 항목 ····· 63
[표 20] 왕래발착동사의 시제 표시 교육 자료 ····· 64
[표 21] '-겠-'의 양태 용법별 시제의 한계 ····· 66
[표 22] '-겠-'의 교육 자료 수정 방향 ····· 67
[표 23] '-겠-'의 단계별 교육 자료 구성 방안 ····· 6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과 필요성

한국과 중국은 고대로부터 끊임없이 교류와 협력을 해온 국가이다. 이러한 상황이 20세기 각국의 정치적 · 역사적 상황에 의해 잠시 단절 되었다가, 1992년 양국수교정상화를 계기로 교육, 문화, 정치, 경제,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교류가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힘입어 한국에서 유학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내에서도 한국어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경제, 정치, 외교 부문에서 중국어-한국어간 정확한 언어전달과 중국인 한국어 인재의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어의 교착어적인 특징과 중국어의 독립어적인 특성에서 기인한 상이점을 메꾸고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설명서나 고급 중국인 한국어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미비점은 양국의 다른 언어체계와 길지 않은 한국어 교육 역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동사가 나타나지 않는 중국어 문장을 한국어 문장으로 번역할 때 이를 동사가 나타나는 문장으로 번역해 주어야 할 경우가 있다. '冬天了'라는 중국어 문장을 한국어로 바꾸면 '겨울이 되었다'나 '겨울이 왔다'로 해석 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국어의 '冬天了'라는 문장에서는 어디에도 동사를 찾아볼 수 없는 데 반해, 한국어로 옮길 때는 '되었다'나 '왔다' 등의 동사를 사용하여 옮겨야 하는 것이다[1]. 하지만 한국어 교육에서 이러한 사실을 주지시키는 교육이 부족하고 많은 한국어 교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앞의 예뿐만이 아니며 한국어 어법의 각 부문에 산재해 있다.

---

1) 변화태 '了'는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데 때로는 동사가 없는 문장에서 명사 뒤에 붙어 상황이 변한 것을 설명한다. 한국어로 번역 할 때에는 동사가 없는 문장을 동사가 있는 문장으로 옮겨줘야 한다. 변화태 자체는 과거형과 겹치는 부분이 적게나마 있으나 상과 양태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더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논의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한국어의 시간 표현[2]은 서술형에서는 선어말어미로, 관형격에서는 관형사형어미로 실현된다. 중국어의 시간 표현은 시간사 혹은 조사[3]로 완성된다. 그런데 한국어의 시간 표현을 나타내는 문장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교육을 받고 이해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가, 또는 교육 현장에서는 어떠한 점에 주의를 해야 하여, 한국어 교재를 구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시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와 동사의 시점을 표현하는 관형사형어미를 살펴보고, 교육현장에서 한국어 교육자들이 어떠한 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교재를 구성할 때는 어떠한 면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문법에 대한 이해도는 학습자가 한국어를 공부할 때, 모국어와 연계하여 이해하기에 모국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라면, 한국어의 종결어미나 선어말어미에 대한 이해가 빠르겠지만,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다. 중국어에는 특히나 한국어의 조사나 선어말어미와 유사한 문법요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제의 대부분이 선어말어미로 이루어지는 한국어의 특성상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시제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쓰기 위한 것이다. 초급자나 중급자를 양성하는 한국어 교육의 우선적 목적은 한국어를 읽고, 쓰고, 듣고 말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면, 중국인 고급 한국어 능력자의 수요가 증대되는 이때,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쓰는 학습자를 양성하는 교육 방법론이 필요하고, 이것은 반드시 문법 교육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법의 한 부분으로 시간 표현을 택하여, 이것의 교육이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내용은 교재에서 나타

2) 이 연구에서 시간 표현이란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문법적 요소를 이르는 용어로 사용한다.

3) 중국어의 조사(助詞)에는 구조조사(构造組詞) '的, 得, 地, 所'와 어조조사(語調組詞) '呢, 嗎, 吧, 啊, 嗎, 咦' 그리고 동태조사(動態組詞) '了, 着, 過, 來着'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중 동작의 시점을 표시하며 태를 결정하는 동태조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기에 교재 구성에서 나타난 오류를 수정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의 시제 부분을 분석하고,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오류와 결점들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를 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시제 교육에 방안을 제시 해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먼저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간 표현 방법을 비교하고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문법 부문의 오류 지적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어의 시제는 학자들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의 3분법으로 나누는 견해가 있고, 과거와 비과거의 2분법적 대립으로 보는 견해가 있기도 하다.[4] 시제 3분법과 2분법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적절한가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한다. 현대인의 인식 관념이 과거, 현재, 미래의 3분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보편적이고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도 3분 체계가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데 더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어, 한국어의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로 3분하는 관점에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중국어의 동작의 시점 표시는 서구나 한국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형태가 아닌, 완료태, 변화태, 경험태, 진행태, 지속태, 임박태로 나뉜다.[5] 물론 적지 않은 중국 문법학자들이 중국어의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이는 문법적 통일성이 없는 관념과 인식개념, 그리고 문맥 하에서 시간의 개념이 문장과 문맥에 어떠한 식으로 들어가는가를 살펴보는, 어휘와 의미론의 개념이지 문법론의 개념이 아니다. 또한 중국어의 시간 표현 체계는, 외국인에게 중국어를 교육하기 위한 중국어 문법체계와 내국인의 학문을 위한

4) 시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견해는 학교 문법에서처럼 과거. 현재. 미래로 보는 3분법 견해(최현배, 1937; 홍종선, 1990; 왕문용 · 민현식, 1993)와 과거와 비과거로 나누는 2분법 견해(이익섭 · 채완, 1999)가 있으며, 시제는 없고 단지 상만이 존재한다는 무시제설도 있다.(남기심, 1978,『국어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

5) 허성도(2007), 『현대 중국어 어법의 이해 』, p.485.

문법체계라는 2원적 체계로 나뉘어져 있다.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 중국 내국인의 학교문법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제 개념을 택하여 상술하고자 한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문법 교육 개발을 위해서는 중국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의 시간 표현 개념을 이루는 체계를 중심으로 상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논지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논문이나 학술 자료들이 중국어의 시제를 서구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와 상의 개념인 '완료, 진행'으로 집필해 왔기에 중국어와 다른 언어와의 비교 연구나 교육 연구에서 중국어의 시간 표현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목차의 어느 부분에도 들어가지 않는 동작의 시점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었다. 제2장에서는 이렇게 중국어 문법에서 기술하는 시간 표현을 기준으로, 한국어 문법에서 시간 표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관형사형어미와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고,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특징적일 수 있는 한국어 시간 표현을 상술할 것이다. 2장에서 나타난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간 표현 차이점과 한국어 시간 표현의 특성을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가운데 시간 표현 문법 부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성취의 가장 확실한 매개체는 한국어 교재가 될 것이기에 3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는 유사성이 적은 언어라는 점을 전제로, 현재 한국이나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의 시간 표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분석하고, 오류를 찾아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문헌 연구와 실제 교육 현장이나 실생활, 또는 학습할 때 쓰이는 많은 예문을 들어 이를 분석하고 해결해 가는 형식을 취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통문법의 규범성, 비명시성 등의 단점을 보완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찰에 기초를 두고 언어를 기술하는 구조주의 문법의 접근 방식에 입각해 논지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국어의 시제와 중국어의 시간 표시 방법 비교를 논의하거나, 한국어의 시제를 논의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상과 서법, 양태의 개념이지만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최소한으로 하기로 하고, 범위를 시제 선어말어미와 시간 표현 관형사형어미로 한정하기로 한다.

이 연구의 집필 방향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한국어 시간 표현과 중국어

시간 표현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것이고, 둘째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시간 표현에 대한 교육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다.

제 3 절 선행 연구

한중 수교 이후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어 교육과 그에 대한 연구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과 같은 포괄적인 부문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언어 소통이 한국어 교육의 목적이 되면서 구조주의 이론에 바탕을 두었던 교수법이 멀어지고 기능주의 이론에 의한 교수법이 확산되면서 문법적인 정확한 문장과 이해보다는 소통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6] 그러나 현재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고급 지식 정확하게 통·번역할 수 있는 지식인을 양성해야 할 시점에서는 뉘앙스와 어감까지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구조주의에 바탕을 둔 정확한 문법이나 완전한 문장 구성을 목적으로 미시적 연구 방법론을 택하여 시간 표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와 관형사형어미를 중심으로 중국인들에게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의 각 부문에 대한 교육 방안이 아닌, 기능주의에 바탕을 둔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를 중심으로 한 거시적인 교육 방안이나 정책적인 교육 방안들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규항(2008)에서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거시적인 교육방법과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 중심의 교육 내용을 개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한국어의 교육 목적을, 일반적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 한국어 교육과정, 학문 수행을 목적으로 한 한국어 교육 과정, 특

6) 1970년대 언어 교육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개념은 언어가 문법적인 문장의 생성능력이라는 촘스키의 견해에서 탈피해 언어를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서 적절한 발화를 생성해내는 능력이라고 보는 의사소통 능력의 도입이었다.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은 하임즈에 의해 처음 도입된 이래 캠벨과 웨일즈, 사비뇽, 커넬 등에 의해 언급되었다.(조규항, 200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수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여행을 목적으로 한 교육 과정, 번역을 목적으로 한 교육 과정 등)으로 나누고 이러한 목적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주장하였다.[7] 김충실(2006)에서는 그전까지 대부분 서구인의 한국어 학습 커리큘럼과 교수법에 맞춰 있던 한국어 교수법을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수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에 대해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수법 개발과 임상적 교육 실습을 집대성하였다. 또한, 교과목이나 학습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전통적 교수법과 현대적 교수법, 그리고 개혁적인 교수법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한국어 교육자들에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한정되는 기능주의 교육법의 틀에서 벗어날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한국어 시제에 대한 최초 연구는 19세기 언더우드 등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시도되었으며, 20세기에는 최현배, 주시경등의 전통 문법학자들에 의해 한국어의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로 3분화 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 구조주의 문법의 대두에 따라, 시제의 개념에 상과 양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미래시제가 의지, 예정, 임박 등의 양태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힘을 받기 시작하면서, 한국어의 시제는 문법적으로 과거, 비과거로 2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었다.

王力(1954)에서는 중국어에 시제는 존재하지 않고, 보통 '진행, 완료, 가까운 과거, 임박, 지속, 잠시'로 동사의 양상을 표현하였다. 그는 시제 범주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협소한 범위에서 시제 역할을 하는 시간 부사들이 있다고 보았다. 이 협소한 시간 부사들이 동사의 성질에 따라 나타내는 모습은 다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고가 추구하는 바와 일치한다.

呂叔湘(1975)에서는 중국어의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로 분류하려고 했으

7) 조규항(2008)에서는 한국어 교육 목적을 다섯 단계로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인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한국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둘째, 한국어로 된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셋째, 한국어를 이용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한국 사회와 한국문화를 이해하여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갖도록 한다. 다섯째,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사용하여 친교를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이는 어떠한 문법적인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확인하였을 뿐이다. 朱德喜(1985)에서는 중국어의 동사는 동사의 양상만을 나타내는 태만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는 어떠한 문법적 장치 없이, 현재시제와 과거시제가 언어적 환경과 어휘만으로 표시된다고 보았다. 胡裕樹(1986)에서는 중국어는 제한적으로 시제 역할을 하는 시태조사가 존재하지만, 그것의 존재 자체가 중국어가 시제가 존재한다는 의미는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한국어 시제에 대한 연구로 남기심 · 고영근(1985:301)에서는 문법적으로 현재시제로 표현된다고 해서 그 의미가 반드시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하엿다. 예를 들어 '나는 내일 비행기로 간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의 문법 형태는 현재이지만, 의미는 미래를 나타내기에, 번역할 때 미래로 번역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고 역시도 남기심 · 고영근(1985)의 연구를 바탕으로 삼았으나, 위의 연구에서의 현재형의 미래 표현 현상은 2분법 시제로 보자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는 동사의 특성에 기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현상이 동사의 특성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을 둔다.

이재성(2001)은 '-었-'이 비과거시제의 의미를 가질 경우, 이는 완료상의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닮다'와 같은 형용사성 동사의 경우, '닮았다'는 과거시제가 아닌 현재시제로 쓰이는데 이를 완료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동사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선어말어미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물론 형용사성 서술어를 동사로 볼 것인가는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수많은 상의 성질을 가진 동사 분류에서, 형용사성 서술어를 동사로 보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에 대한 설명이 아쉬운 부분이다.

허성도(2007:495)에서는 중국인은 한국어와 같은 시제의 사유 형태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 중국어에는 시제(tense)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중국어에는 시제가 존재하지 않고, 일정한 시점에 동작의 상태만을 나타내는 태(態)라는 개념만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중국어에서 일정한 동사가 태를 만드는 조사(助詞)와 결합하여

복합적인 시상을 만드는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와 중국어 시간 표현 연구에서 어떠한 공통적인 통일성을 가진 이론 체계를 세우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국은, 중국인 학자들을 위한 문법 체계와, 외국인의 중국어 교육을 위한 문법의 2원적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이 연구는 시간 표현 문법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가치는 별도로 하고 현대인의 인식체계와 사고체계의 관념이 과거, 현재, 미래의 3분법에 맞추어져 있고 이는 한국인과 중국인의 공통분모라는 전제에 따라 교육학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논지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간 표시를 나타내는 문법에 대한 연구는, 한국어는 교착어라는 점 그리고 중국어는 독립어라는 차이점에서 기인한 특징, 또한 한국어에서는 시제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의 3분법으로 나누는가, 아니면 과거와 비 과거로 양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일지만, 중국어에서는 시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가, 아니면 시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가에 대한 논쟁이 일정도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동작의 시점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난다. 또한, 한중간 수교기간이 20년이 채 안된 상황에서 한국어와 중국어간의 문법의 미시적 요소에까지 연구의 범위가 확장되기에는 양국 간 학문 교류의 시간은 비교적 짧았다. 이에, 전문 서적보다는 석·박사 학위 논문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제 비교가 이루어졌다. 王芳은 「한국어와 중국어 시제의 대조연구」(2007)에서 한국어 선어말어미와 중국어의 시제를 비교하였고, 張偉는 「한국어의 '-었-'과 중국어 '了'의 대비연구」(2010)를 통해서, 한국어의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과 중국어에서 완료태를 만드는 '了'의 비교를 통해 이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본고는 한국어의 시간 표현과 중국어의 일정 시점에서의 동작 시점을 나타내는 모습이 유사하다고 보고, 또 외국어 교육의 이해도는 양국 언어 간의 유사성과 강한 관련이 있다는 관점에서 두 언어의 유사점을 비교 분석해보고 선행 연구에서는 시도 하지 않았던 중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에서 시제 부분의 오류들을 분석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 2 장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간 표현 문법 대조

한국어에서는 동작의 시점을 시제(時制)라는 문법적 도구를 통해 나타내고, 중국어에서는 이를 태(態)라는 표현을 사용해 나타낸다. 현재 문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2분법이 우세하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계에서는 3분법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8] 중국어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있다. 중국어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중국어 교수법이 '대외교학(對外教學)'이라는 독립된 학문으로서 존재하며, 대외교학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문법체계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목적의 어법체계는 여러 면에서 구별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인식론과 그 궤를 같이하는 한국어 3분법 체계를 따르며, 이의 관점에 맞추어 서술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중국어의 어법을 채택하는 기준은 한국어와는 다르게, 본고의 목적이 중국에서 고등교육을 마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방안 탐구이기에, 중국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법체계의 대세인 '무시제설[無時態說]'[9]을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 이것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방안을 탐구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 시제는 선어말어미에 의해 표현되는데 중국어에서 동작 시점은 독립적인 단어[10]들에 의해 표현된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교착어[11]와 독립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어의 시제는 선어말어미를 통하여 실

8) 한국어의 고교 교과서, 중등교과서등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 학교 문법 한국어 교재에서는 3분법을 주로 서술하고 있다.

9) 한자음을 그대로 읽으면 '무시태설'이 되어야 하나 무시제설로 번역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국어에서는 영어의 tense(시제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는)에 해당하는 번역이 時態(시태)가 되는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시제라는 용어로 번역하기 때문이다. 시제(時制)는 중국어에서는 시간을 다루는 법적, 사회적 운용방식을 뜻한다. 이에 따라 한국어로는 시제로 명명하고, 이에 해당하는 중국어로는 時態를 사용한다.

10) 還, 才, 剛剛, 就 등의 부사나 시간사, 조사등에 의해 실현되나, 그 실현 범위는 각각의 단어들이 문맥상에서 작용한다.

11) 어떤 말에 독립성이 없는 조사나 접사(接辭) 등을 붙여, 그 기능에 의하여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를 말한다. 한국어·일본어·터키어 등이 이에 속한다. 어미변화가 굴절어(屈折語)와 같이 밀접하지 않고 어근(語根) 안의 변화는 거의 없다. 알타이어족·우랄어족의 언어들이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현되고, 중국어의 시제는 고립된 단어에 의해 실현된다. 또한 중국어에는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12]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한국어 문장을 중국어 문장으로 옮겨 학생들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독립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조사나 선어말어미가 중국어 문장에서는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의미를 통째로 이해한 다음에 가장 유사한 문장으로 옮겨야 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한국어 시제의 선어말어미를 이해하는 것이 기초가 될 것이다.

중국어에서는 태라는 것이 시제 개념을 대신한다.[13] 물론 문법 학자들 간에는 중국어에 시제가 존재하는가에 관한 문제로 논쟁이 있다[14]. 현재 중국 학계에서는 중국어에는 시제가 존재하지 않고, 일정한 시점에 나타나는 동작의 상태만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허성도(2007:485)에서는 중국어 태의 종류는 '완료태, 변화태, 진행태, 경험태, 지속태, 임박태, 현장과거진행태'라고 하였다.[15] 지금까지 이루어진 중국어와 한국어 시제 비교 관련 연구는 중국어 시제를 과거-현재-미래의 방식으로 나누어 중국어의 정확한 모습을 기술하는 데 있어 상당한 공백 부분이 존재하였다.

제2장에서는 시제와 관련된, 중국어의 태의 모습과 한국어 시제를 비교 분석하여, 3장의 한국어 시제의 교재 연구와 관련된 기초적 실마리를 찾아보려 한다. 또한 허성도(2007)의 분류 기준에 따라 '완료태, 변화태, 진행태, 경험태, 지속태, 임박태, 현장과거진행태'로 태를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

12) 중국어로는 時動詞라고 하며 '開始(시작하다), 完成(완성하다), 結束(끝나다), 進行(진행하다), 完了(끝나다), 發動(시작하다), 起動(시작하다)' 등이 있다.

13) 중국어의 태는 상(相)과는 다른 개념으로 한국어에서 상에 해당하는 중국어의 표현은 체(體)이다.

14) 王力(1954)에서는 중국어에 시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보통, 진행, 완료, 가까운 과거, 임박, 지속, 잠시'로 동사의 양상을 표현하였다. 다만, 협소한 범위에서의 시제 역할을 하는 시간 부사들이 있다고 보았다. 呂叔湘(1946)에서는 발화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제한적으로나마 시제를 나누었고, 朱德喜(1985)에서는 중국어의 동사는 양상만을 나타내는 태만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어떠한 문법적 장치 없이 현재시제와 과거시제가 언어적 환경과 어휘로 표시된다고 보았다. 朱德喜(1985)의 견해는 중국어에 대해 가장 적절하게 분석한 것으로 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15) 허성도(2007:495)에서는 중국인은 한국인과 같은 시제의 사유형태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중국어에는 시제(tense)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태에 대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적 분류를 더하는 것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유용한 인식론적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중국인이 자국에서 태에 대하여 교육받은 것을 한국어의 과거, 현재, 미래 시제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더욱 유용할 것이라고 보아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HANSUNG UNIVERSITY

<표1> 한국어 시간 표현 문법 요소

시간 표현 범주	선어말어미	관형사형어미16)
과거	-었-, -었었-, -더-	-(으)ㄴ, -던
현재	-는/ㄴ/∅-17)	-는
미래	-겠-	-(으)ㄹ

<표2> 중국어 태의 종류

태의 종류	관련 어휘	설명
완료태	동사 뒤에 위치하는了	특정한 동작이 이미 발생한 상태
변화태	문장의 뒤에 위치하는了	변한 상태를 나타낸다.
진행태	在，正在，正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형식
경험태	過，沒有~過	"~한 경험이 있다"라는 경험의 유무를 나타냄
지속태	着	하나의 동작이 끝난 후에 그 동작의 결과로 나타난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
임박태	要~了	어떤 동작이나 상황이 곧 발생하려는 상황
현장과거진행태	來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진행된 행위를 바라보는 시태

16)학교 문법에서 정의하는 관형사형어미는 '-(으)ㄴ, -는, -(으)ㄹ, -던' 네 가지이다.(이관규, 2005:302, 『국어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

17) 서정수(1976)에서는 특별한 선어말어미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로 표시한다고 하였다.

제 1 절 과거 시간 표현 문법 대조

현재가 정해지면 그 현재를 기준으로 대상, 사태(事態)는 현재와 같은 위치를 가질 수도 있고 현재보다 앞서는 위치를 가질 수도 있으며, 현재 이후의 시간에 위치할 수도 있다. 이들 사태를 각각 현재사태, 과거사태, 미래사태라고 부른다.[18] 이중 현재보다 앞서 있는 사태, 즉 과거 사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에는 '-었-', '-었었-', '-더-', 관형사형어미로는 '-던'이 있다.

(1) a. 어제 뭐 했냐고? 운동장 가서 축구 했어.
(昨天干什么了？在運動場踢足球了)
b. 어제 학교에 갔었어.
c. 어제 먹던 음식 다 먹었어?
(昨天吃過的食物都吃了？)
d. 몸이 안 좋았어요.

(1a)는 현재가 아닌 어제 한 행동이, 한국어의 선어말어미 '-었-'에 의해 과거시제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보통 선어말어미 '-었-'이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문법도구라고 할 수 있다. (1b) 역시 과거시간을 타내는데 그 성격은 다르다. 이때는 과거시제가 선어말어미 '-었었-'으로 실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떠한 일정한 과거를 전제로 그 과거보다 더 과거에 사건이 발생한 것을 나타낸다. 시제의 하위 분류에서는 이를 대과거시제라고 하기도 한다. 또한, 과거에 일어났던 동사의 영향력이 현재는 완전히 소멸되어 있을 때 이 표현을 쓴다. (1c)에서는 관형사형어미로 쓰이는 과거 표현 어말어미 '-던'으로 표현되는 과거를 나타낸다. (1d)의 경우는 중국인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될 수도 있다. 이 문장은 중국어에서 문법적으로 통일된 시제가 없다는 반례가 될 수 있다. 중국어는 동사의 경험 유무를

18) 이재성(2001),『한국어의 시제와 상』, 국학자료원, p46.

나타낼 때 시태조사 '過'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동작의 경험 유무만을 나타내기에, 형용사에는 사용 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중국어의 '過'는 동작의 경험 양상만을 나타내는 것이지, 시간적으로 기준 시점 이전의 과거 사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실제 이 문장을 특별한 첨가 단어 없이 직역하게 되면, '我的身体不好。'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이 중국어 문장 자체만을 본다면 시제는 과거인지, 현재인지 알 수가 없다. 한국어 교육 교재 집필자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 서술어에도 선어말어미 '-었-'을 첨가함으로써 과거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본질적 차이에서 기인하기에, 'She was so beautiful.'을 쓸 수 있는 영어권 학습자나 조사가 존재하는 일본어권 학습자보다도 중국어권 학습자에게는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동사의 성질에 따라 서술어에 '-었-'이 결합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과거시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어떠한 문장은 서술어 동사에 따라 문맥적으로 현재 시간 표현과 과거 시간 표현 둘 다로 해석될 여지를 보이는 것이 있다. 외국어를 학습할 때 난해한 부분 중 하나는 예외 상황의 출현인데, 이 역시 교재 집필 과정에서 학습자의 이해도와 사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다. 다음의 예를 통해 이러한 동사들의 종류를 살피고 분석해 보기로 한다.

(2) a. 여보, 집에 빨리 들어오세요. 군대 갔던 창식이가 왔어요.
b. 영수 할머니 상당하셨다는 소식 들었지?
c. 저번에 너희 부모님 보니까 너무 늙으셨더라. 잘해드려.
d. 저 결혼했습니다.
e. 너 지금 무슨 옷 입었어?
f. 고기가 다 익었어. 빨리 먹자고.
g. 너희 둘 형제 아니니? 정말 닮았다.
h. 지금 문 열렸나 안 열렸나 잘 확인 좀 해봐.

(2a)의 앞의 문장에서 '오다'는 시간 표현의 특별한 선어말어미나 문법적 장치 없이 청유형어미가 쓰인 경우이다. '오다'나 '가다'와 같은 왕래발착동사는 시제 선어말어미를 사용하여, 그 시제보다 뒤에 오는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철수가 곧 집에 온다.'에서 '오다'에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ㄴ-'이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는 미래이다. 이는 문맥에 따라 도착점의 시점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비롯된다. 왕래발착동사가 현재의 의미로 쓰이게 되면, '떠나거나, 와있는' 상태에 중점을 둔다. 이때 이러한 동사 서술어와 선어말어미 '-었-'의 결합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시제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어제 집에 갔다.'라는 문장은 어제 철수가 집에 간 동작에 중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과거시제가 된다. 중국어의 왕래발착동사에서도 역시 이러한 현상들이 발견되는데, 이는 인지언어학에서 말하는 언어 인식의 보편성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19] 영어는 이러한 현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한다. 'She went'와 'She is gone'이 명백하게 과거시제와 현재시제로 구분된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같은 형태의 문장이 동작에 초점이 맞추어졌는가,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졌는가에 따라 시제 해석이 다르게 된다. 중국어에서 '他走了(그는 가버렸다. 그는 가고 없다.)'라는 문장 역시도 동작에 초점을 맞추는가, 아니면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서 시점이 달라진다. (2b) 같은 경우는 '듣다'라는 동사가, 일시적으로 듣는 동작을 나타내 끝나는 지점이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듣고 기억하고 있는 상태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항은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2c)의 경우는 좀 더 주의 깊게 들여 봐야 한다. '늙다'는 시작점이 존재할 수 없는 성질의 형용사성 동사이다. 또한 상황 변화 그 자체를 나타낸다. '예쁘다' 역시 형용사이지만, '예슬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예뻤어.', '유이는 태어날 때부터 예뻤어.' 등과 같이 시작점 설정이 가능한 형용사이다. 이처럼 문맥에 따라 두 가지 시제로 해석이 가능한 성질의 동사에는 (2f)의 '익다',

19) 인지언어학에 따르면, 언어 구조는 인간의 인지과정에 반영된다. 객관적으로 동일한 상황이나 장면을 각기 다르게 지각하고 인지하는 인간의 인지능력, 즉 해석의 표명 방식이 인지언어학의 주요 관심사이다.(1991 데이비드리 『인지언어학 입문』)

(2g)의 '닮다' 등이 더 있다.

(2d)의 경우 역시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이 결합되었지만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2d)의 경우는 앞의 경우와는 다른 원인으로, 현재시제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결혼하다'라는 의미가 '결혼을 하는 동작을 하다'라는 동작동사의 의미와 '결혼을 한 상태이다'라는 상태동사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종류의 동사들은 동사의 기본형으로 보면, 동작동사의 성질이 강한데, 그 동작이 끝난 후 그 동작의 상태가 지속되는 특징을 가진다. 왕래발착동사의 경우는 한 행위가 끝난 후 그 동작과는 연관이 없는 다른 상태가 지속되는데 반해 이 종류의 동사들은 그 동사의 의미와 직접적 연관을 가지는 상태가 지속되는 특성을 보인다. (2e)의 '입다' 그리고 (2h)의 '열리다' 역시 이러한 중의적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을 통해 현재시제와 과거시제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

(2e)의 '입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의미에서 중의적 의미의 해석이 가능하다. '나는 옷을 입고 있다.'라는 문장이 있을 경우 이 문장은 현재 옷을 입고 있는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옷을 입지 않은 나체가 아닌 상황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결혼하다', '열리다'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재시제로 쓰이고 있는 경우 중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다. 또한 왕래발착동사와 비교해 보자면 왕래발착동사는 그 동작 행위를 했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로 해야만 그 뒤의 상태가 발생한다. 즉, 상태의 의미는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가는, 오는, 출발하는' 행위들이 결과가 이루어진 상태인가 아니면 동작 자체인가에 중점을 뒀느냐에 따라 시제가 달라지지만, '입다' 류의 동사들은 독립적으로 상태나 동작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입다'의 경우 언제 입었는지 상관없이 '입고 있는 상태'를 가리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현재 진행 형태로 있을 때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각 동사는 동사의 성질에 따른 특징에 있는데, 한국인들은 이러한 동사의 특징에 따른 선어말어미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중국인은 이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재성(2001)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선어말어미 '-었-'의 고유기능으로 보았으나, 본고에서는 이것은 동사의 특질에 따

른 변형으로 본다.

과거 시간 표현 선어말어미 '-었-'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지도할 때 현재 많은 교재와 교육 현장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형용사에 과거형 선어말어미 '-었-'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과 왕래발착동사와 같은 것은 '-었-'의 결합에도 불구하고, 문맥에 따라 현재시제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과거시제로 의미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HANSUNG UNIVERSITY

<표3> 한국어 동사 특성별 분류

동사 분류		동사 예	특성
형용사		늙다, 익다, 닮다	시작의 시점이 모호한 경우의 동사들
왕래발착동사		가다, 오다, 떠나다, 출발하다	현재시제의 문법적 형태표시로 미래시제의 의미까지 나타낼 수 있다.
상태 변화와 동작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동사	상태 변화이후 상태 변화의 지속성이 부여될 수 있는 동사	결혼하다. 열리다, 켜지다, 꺼지다, 다치다, 굵히다, 밝아지다, 어두워지다. 알다.	상태변화 이후 지속된 상태를 보여준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동사	입다, 메다, 타다	과거시제의 형태로 쓰일 경우 과거시제와 현재시제의 의미로 모두 쓰일 수 있고, 현재시제로 쓰일 경우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위의 <표3>의 동사는 과거형 선어말어미 '-었-'과 결합하였을 때 현재형을 표현할 수 있기에 명확한 과거형을 표현하고자 하는 때는 '-었었-'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학습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은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이해

이다. '-었었-'은 의미적으로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표3>의 동사들은 과거 시간 표현 선어말어미 '-었-'과 결합하여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의 유무만을 설명하고 있거나, 중복된 의미가 현재시제로도 해석이 가능한 경우이다. 그러나 '-었었-'은 명확한 과거사건의 영향력이 현재에는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3) a. 여기도 한때는 눈이 많이 내렸었지.
b. 12월에 눈이 많이 내렸어.
c. 정훈이는 결혼했었어.

(3a, b)는 모두 과거시제를 나타내고 있으나. (3a)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다는 이다. (3b)는 12월에 눈이 많이 내린 사건이 일어난 과거시제를 단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어로 정확하게 옮긴다면 '這地方以前下過大雪。'이 되어 '이전에'라는 부사를 사용하여야 하며, '-(으)ㄴ 적이 있다'의 의미를 가지는 '過'를 사용하여 과거와의 단절 의미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온당하다. (3c)에 사용된 '결혼하다' 동사 서술어를 과거시간 표현 선어말어미 '-었-'을 사용하여 '결혼했어'라는 형태로 쓰면 현재 기혼 상태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런데 '했었어'의 형태로 사용하게 되면 그 시간은 과거로 한정되어 현재는 기혼이 아닌 이혼의 상태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중국어에서 경험태를 사용하여 '他結過婚' 이라고 하게 되면, 결혼한 적이 있지만 현재 재혼을 해서 부부가 같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혼자 사는 상태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중국어의 경험태는 경험의 유무만을 나타낼 뿐이지 현재와의 단절 유무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경험태는 상황에 따라서는 과거 시간 표현 선어말어미 '-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4> 중국어 경험태와 한국어 '-었었-'의 비교

	경험태 '過'	'-었었-'
특징	과거의 경험의 유무를 나타낸다	과거를 기준으로 더 먼 과거를 나타낸다.
차이점	경험태는 과거의 경험의 유무만을 나타내고, 현재와의 관련성은 없지만, '-었었-'은 현재와의 완전한 단절을 나타낸다. 경험태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현재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었었-'으로 실현된 사건은 현재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사건을 뜻한다.	
공통점	과거 일정 시간 동안 경험했었던 일을 나타내고,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국어 관형사형어미의 과거 표지로는 '-(으)ㄴ, -던'이 있다.

(4) a. 오늘 내가 만든 요리 어땠어?
b. 그렇게 착했던 네가 이렇게 변하다니
c. 그때는 대통령이었던 분이 지금 이렇게 생활하시다니.

(4a)에는 과거시제 관형사형어미 '-(으)ㄴ'이 실현되었다. (4b)는 형용사의 과거형이 관형어로 쓰일 때 '-던'이 사용된 것이다. (4c)는 과거 시간 표현 선어말어미 '-었-'과 관형사형어미 '-던'이 동시에 실현된 것이다. 관형사형어미는 선어말어미 뒤에 쓰인다. 한국어교육에서 각 문법 요소별 위치를 확실하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20]

20) '공부하+시+었+던→공부하셨던, 아프+시+던→아프시던, 아프+시+었+던→아프셨던' 등 위치 관계에서 선후 관계를 잘 가르쳐야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표5> 어미(語尾)의 위치 선후 관계

동사의 어간 + 높임 선어말어미('-시-') + 시제 선어말어미('-었') + 관형사형어미('-던')

한국어 관형사형어미에 해당하는 중국어 표현은 조사 '的'으로서, 비교적 간단한 대응 양상을 볼 수 있다.

(5) a. 今天我做的菜怎么樣？
b. 這么善良的你變成這樣。
c. 那時總統的這位過不好的生活。

(5a~c)는 (4a~c)를 번역한 것인데, 관형사형어미가 '的'으로 대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관형격을 표현하는 문법적 도구가 한국어는 시제에 따라 다르지만 중국어는 '的'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서 그 의미는 문맥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어의 과거 표지는 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부사들이나, 사태조사 '過'를 사용하거나 '了'를 사용해 나타나기도 한다. 즉, 시제라는 어떠한 일정한 문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에, 언어적 환경에 따라 '어제, 그제'와 같은 구체적인 시간 표현 부사를 사용하거나, 언어적 환경에 따라 경험태를 나타내는 조사 '過'나 완료태'了'를 써서 의미를 표현한다. 중국어의 과거 시간 표현은 문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의미적으로는 존재하기에, 어떠한 통일된 기준이나 공식, 법칙에 의해 의미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드시 언어적 환경이라는 도구를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 교재에서는 이러한 면을 반영하여, 언어적 환경에 따라 시간적 의미를 구분하는 훈련에 중점을 맞추어야 한다.

(6) a. 他以前不是這樣。(그는 예전에 이렇지 않았다)
b. 我去過美國。(나는 미국에 가본 적이 있다)
c. 下了雨。(비가 내렸다)

(6a)를 보면 '以前'이라는 과거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시간사가 문장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以前'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장 성분은 현재시제와 일치한다. 동사나 문장의 형태에서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장을 한국어로 옮길 경우에는 선어말어미 '-었-'을 사용해야 한다. 이처럼 중국어에서 과거의 의미가 명확한 문장이 한국어로 번역될 경우, 한국어 서술어에 과거시제 선어말어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b)에서도 한국어의 문장의 의미가 중국어로 정확하게 옮겨져야만 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과거에 어떠한 동작이 완료 된 것도 과거시제이고, 과거에 어떤 특정한 경험을 한 것도 과거시제이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를 모두 선어말어미 '-었-'을 사용해 표현하고, 나머지는 문맥이나 언어적 환경에 맡겨두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때 중국어 문장에서는 경험태와 완료태를 구분해서 사용하게 된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를 편찬할 때에는 이처럼 선어말어미 '-었-'이 존재하는 과거형 문장이 있을 경우, 문맥에 따라 경험태나 완료태 또는 어떠한 경우에는 변화태로 보아야 하는 상황이 있고, 선어말어미 '-었-'의 의미를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표6> 한국어와 중국어의 과거 시간 표현

한국어의 과거시간 표지	중국어의 과거시간 표지 가능한 태의 형태	
'-었-'	경험태	동사+過
	완료태	동사+了
	변화태[21]	문장 끝에 了[22]

21) Li & Thomson(1981)에서는 변화태 '了'의 독특한 의미 기능을 '현재와의 관련성'으로 정의하고, 그 중 상태의 변화를 가장 전형적인 예로 들고 있다.

22) 동작동사의 뒤에 '了'가 붙어 문장이 끝나는 경우, '완료태, 변화태, 완료태+변화태'의 의미는 문맥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이를 부정형으로 바꾸면 이 가운데의 어느 용법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허성도, 2007:506)

제 2 절 현재 시간 표현 문법 대조

한국어에서 현재시제라는 것은 문장으로 표현되는 사건이, 발화시와 동시에 일어나는 시제를 말한다. 그리고 이 현재시제는 보통 '-는-'을 통해 실현이 된다. 한국 학계에서 문법연구자들 간에 통용되는 현재시제라 함은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을 모두 말한다.[23]

이 절에서는 한국어 현재시제 관련 선어말어미 '-는/ㄴ/∅-'와 관형사형어미'-는'을 살펴보고자 한다. 관형사형어미 '-는'은 의존명사 '중'과 합쳐져 '-는 중'의 표현을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24]

(7) a. 오늘 몸이 안 좋다.
b. 빵을 먹는다.
c. 라면을 끓인다.
d. 저기 물건 사시는 분이 저희 선생님입니다.

(7a)는 현재의 상태를 보여준다. (7b, c)는 현재의 동작을 보여주고, (7d)는 현재의 정해진 일정한 사실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렇게 현재 시간 표현의 형태를 취하는 데 반해 미래 시간 표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혼동할 개연성이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8) a. 가: 지금 뭐해?
나: 집에 간다.
b. 가: 내일 뭐해?

---

23)남기심 · 고영근(1985:301)에서는 문법적으로 현재시제로 표현된다고 해서, 그 의미가 반드시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나는 내일 비행기로 간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의 문법 형태는 현재이지만, 의미는 미래를 나타내기에 번역할 때도 미래로 번역해야 한다.

24) 이관규(2005:304) 참조.

나: 집에 간다.

(8a, b)의 (나)는 완전히 같은 문장 형태인데 (8a)에서는 현재를 나타내고 (8b)에서는 미래를 나타낸다. 이 두 문장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며, 번역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 (8a나) 문장 같은 경우 중국어는 진행태를 사용하여 '我正在回家呢。'라고 번역이 되지만, (8b나) 문장은 '我要回家。'로 번역이 되어야 한다. 외국인에게 구조를 통한 한국어 문장 분석에 따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문맥과 언어 사용 환경을 고려하는 능력 역시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렇게 완전한 현재시제 문법적 형태의 문장일지라도 이 문장이 미래시제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시나 다른 문장과의 관계 그리고 언어적 환경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

중국어에서는 진행태나 지속태로 동작이나 상태의 지속을 설명한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어떠한 경우에는 시간적 의미는 현재시제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만 의미는 두 가지로 분화되는 경우가 있다.

(9) a. 她在洗澡。(그녀는 샤워를 하고 있는 중이다.)
b. 她在說英語。(그는 영어를 하고 있다.)

(9a, b)는 현재 상황이나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9a)는 샤워를 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고 있고,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9b)의 경우를 보면, 중국어 원문을 한국어로 '그는 영어를 한다.'라는 형식으로 옮기게 되면 이는 '영어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낼 수도 있고, '영어를 할 줄 안다.'는 능력을 나타내기도 한다. '영어를 한다.'는 한국어 문장을 중국인 학습자가 동작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능력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는 순수하게 문맥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교재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 동사들에 대한 분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에서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관형사형어미 '-는'을 들 수 있다. 현형용사나 서술격조사 '이다'와 결합할 때는 '-(으)ㄴ'이 사용된다.

(10) a. 춤을 추는 무희들(현재)
b. 춤을 춘 무희들(과거)
c. 춤을 추었던 무희들(과거)

(11) a 在跳舞的舞姬
b 跳了舞的舞姬
c 跳過舞的舞姬

(10 a ~ c)에서 관형사형어미 활용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11 a ~ c)는 (10 a ~ c)를 각각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10a)는 '-는-'이 사용되어 관형격의 현재 시간 표현을 표현하였고, (10b)는 관형격의 과거 의미를 표현한다. (10c)는 과거 시간 표현의 관형사형어미 '-던'이 선어말어미 '-었-'과 같이 쓰인 예인데, (11a~c)를 통해 한국어 관형사형어미는 모두 중국어 '的'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3 절 미래 시간 표현 문법 대조

한국어에서 미래시제는 과거시제와는 상이한 부분이 있다. 과거시제와 현재시제는 현재 경험 내지는 과거의 경험했던 사실로서 실체가 존재하지만, 미래는 경험이 배제되었기에 순수한 시간 개념이 아닌 양태의 요소가 포함된다. 즉, 미래시제는 어떤 특정한 시제의 문법 형식 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추측, 예정, 의지 등의 양태에 의해서 실현이 된다. 시제를 문법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가정 하에 통일성을 가진 문법 형태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면 미래시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어 시제를 과거와 비과거로 나누는 연구자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 것은 인식론

적인 현대인의 사고 체계나 어휘, 문장으로 표현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청자의 관점에서 보면 적절하다. 한국어 문법을 연구할 때 구조론적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학적인 측면에서는 인식 사고의 체계인 3분법에 따라 미래시제를 설정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본다. 또한 미래시제가 양태나 서법 개념에서 다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선어말어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미래시제를 설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미래시제는 문법적 의미라기보다는 인식, 양태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익섭(2000)에서는 한국어 시제에 미래시제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남기심 · 고영근(1985: 307)에서는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형식의 하나로 '-겠-'을 설정하고 있다.

중국어에서는 미래시제는 '將', '要', '卽將', '將要' 등의 조동사를 통해 실현된다. 이러한 조동사들은 동사의 앞에 위치해 양태를 나타내면서 시제를 나타낸다. 또는 문장에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어를 삽입해 표현하기도 한다. 태를 통해서는 임박태로 실현된다.

<표7> '-겠-'의 용법과 특징

'-겠-'의 용법		특징
순수한 미래		실현되지 않은 사건이 발화 시각 이후에 발생함을 나타냄
양태	추측	현재나 미래의 사실에 대한 추측
	의지	1인칭 주어일 때만 가능함
	능력	1인칭 주어가 아닌 경우, 대부분 추측의 용법과 겹치게 됨
추측의 의미로 과거시제와 같이 사용될 경우		과거시제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과거시제 선어말어미를 동반해야 함

이러한 설명이 추측의 양태로 쓰였을 때 1인칭 주어가 쓰인 문장에 선어말어미 '-겠-'이 등장했다고 해서 반드시 추측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런데 많은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25]

미래시제는 많은 한국어 문법 연구자들에게는 문법적 통일성을 가진 시제 체계라기보다는, 문맥과 인식적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실제 미래시제를 나타낸다고 여겨지는 선어말어미 '-겠-'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 모두에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것이 추측과 의도, 의지 등의 양태 형식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선어말어미 '-겠-'이 모두 양태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또한 각 양태에 따라 사용되는 시제가 제한이 되는 측면이 있다.[26] 이에 '-겠-'을 단순히 양태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외국어의 시제와 비교해 볼 때 미래시제 문장을 번역할 때 '-겠-'을 사용하지 않으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겠-'에 대한 분석과 정리는 중요하다.

(12) a. 다음 주에는 작업장에 가봐야겠다.
b. 다음 달에는 장마가 오겠는걸?
c. 한 시간 후에 사장님 내외분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12a~c)의 발화 시점은 모두 현재이다. 그런데 동작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보면 (12a)는 다음 주이고 (12b)는 다음 달 그리고 (12c)는 한 시간 후를 나타낸다.

중국어 문장에서 미래의 시간사가 있는 경우에 한국어로 옮길 때 선어말어미 '-겠-'을 사용하면 부드럽게 번역이 된다. 중국인들이 한국어를 읽고 쓰고 말할 때 양태 표현의 '-겠-'은 많은 숙련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겠-'을 사용하면 적절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미래시제의 해석에서 중국어를 한국어로 옮길 때와 한국어를 중국어로 옮길 때 구분해야

25) 이 연구 3장과 4장에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26) 추측과 확신의 양태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양태가 모두 가능하나, 예정과 확정의 양태에서는 미래로 한정된다. 이는 3, 4장 교재 분석 부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한다.

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어에서 미래를 나타낸다고 보는 선어말어미 '-겠-'이 미래를 나타내기보다는 여러 가지 양태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어 미래 시간 표현의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선어말어미 '-겠-'을 사용해 처리해 주는 것이 부드러운 번역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3) a. 고향은 지금 겨울이 왔겠다. (故鄉現在是冬天。)
b. 寒冷的冬天將要到來。(추운 겨울이 곧 오겠다.)

(13a)의 시제를 미래시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중국어 문장의 미래시제를 '-겠-'을 사용해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나 '-겠-'이 출현했다고 해서 이를 미래시제로 인식해 중국어 문장의 미래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것은 한국어 교재에 반영되어야 하고 교육현장에서는 이를 학생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으)ㄹ 것'이라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구문은 상당부분 미래시제를 나타내지만 반드시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에 중국어 문장에서 미래시제가 나타날 경우 '-(으)ㄹ 것-'으로 번역을 해주는 것은 적절하지만, 한국어 문장에서 '-(으)ㄹ 것-'이 나타날 경우 이를 중국어의 미래시제를 사용해 번역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중국어에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방법에는 평서문에 시간사를 붙여 만드는 방법과 변화태에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要'를 사용하고 문장의 후미에 '了'를 첨가하여 미래에 변화가 발생할 것임을 상술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임박태라고 한다. 허성도(2007:529)에서 "임박태란 어떤 동작이나 상황이 곧 발생하려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였다. 임박태는 '要~了'형식으로 표현되는데, '要'는 장래를 나타내며 '了'는 변화를 나타낸다.

(14) a 快要下雨了。(곧 비가 올 거에요.)
(14) b 比賽馬上要開始了。(경기가 바로 시작되겠습니다.)

위의 (14a, b)를 보면 중국어의 임박태로 실현된 미래 시간 표현이 한국어의 선어말어미 '-겠-'으로 옮겨져 있다. '-겠-'을 미래로 한정시킬 수는 없지만 중국어의 미래 시간 표현을 한국어로 옮길 때는 '-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어미에는 '-(으)ㄹ'이 있다. 물론 의존명사 '-것'과 결합한 '-(으)ㄹ 것'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15) a 할 일은 많은데,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b 내일 집에 있을 거야?

(15a)의 '할 일'에는 미래의 관형사형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15b)를 보자면, 서술격 조사와 결합하는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가 과거시제에서는 '-던'이고, 현재시제에서는 '-는-'이 사용 되는데 반해, 미래시제에서는 특별히 다른 관형사형 시제가 쓰이지는 않는다 것을 알 수 있다.

<표8> 시간을 표현하는 관형사형어미

시간 범주	한국어의 관형사형어미		치환 가능한 중국어의 관형격 조사
	동사와 결합	형용사와 결합	
과거	-(으)ㄴ, -던		的
현재	-는	-(으)ㄴ	
미래	-(으)ㄹ		

제 3 장 중국인 대상 한국어 교재의 시간 표현 문법 분석

현재 중국의 문법학계에서는 문법적으로 통일된 시제라는 개념은 없고,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제한적으로 시간 표시를 하거나 문맥에 따라 완료나 진행의 의미를 표현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그러나 중국어 문법체계는 중국 국내 학계와 자국인 교육을 위한 초·중·고등 교육에서는 공식적으로 시제가 없다는 학설을 기준으로 논리를 펴나가고 있으나, 외국인을 위한 중국어 교육인 대외한어교육 체계에서는 비중국어권 외국인들의 사고 체계를 고려하여 과거·현재·미래시제의 3분 체계로 시간을 표현한다.[27] 한국어 역시도 학계에서는 시제 2분법이 3분법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인식론과의 일치점과 유사성이 많은 3분법이 교육학적인 가치가 우세하다고 보아 학교 문법에서는 이를 채택하고 있다.[28]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교재의 대부분도 이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3분법을 기준으로 기술한다. 3장에서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인식론과 일치한 체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교육적 가치가 높다고 보아 3분법으로 나누어 서술할 것이며, 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의 보완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현재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내용이 비슷한 면이 많이 발견된다. 본고에서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 해설이나 설명이 있는 교재들을 선정한다. 그 설명이 상이하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는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 4종 8권『가나다 korean for chinese 1·2』,『이화 한국어(중국어판) 1·2』,『남서울 한국어 1·2』,『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1·2』와 중국에서 출판된 2종 3권『신표준 한국어 초급 1, 중급 1』과 중국에서

27)『對外漢語敎學實用語法(修訂本)』(盧福波, 2011, 베이징어언대학출판사)에서의 시제 기술 방법은 과거, 현재, 미래의 3분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28) 실제 한국 국어 교과서의 7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준시와 사건시의 선행관계를 비교해 과거, 현재, 미래시제를 구분하고 있으며, 시제 2분법과 3분법의 구분점인 미래시제에 대하여는 추측, 의지라는 것을 달아 부연 설명하고 있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생을 위한 교재『橋梁韓國語-베론 한국어 1』이다.

<표9> 분석 대상 중국어판 한국어 교재 목록

교재명	저자	출판사	발간년도
『가나다korean for chinese1.2』	가나다한구어학원 교재 연구회	랭기지플러스 <한글마크>	2010. 8.
『이화 한국어(중국어판) 1.2』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이화여자대학교 출판사	2010. 6.
『남서울 한국어 1.2』	남서울대학교 국제문화교류원	남서울대학교 출판사	2009. 2.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1.2』	강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	강남대학교 출판사	2007. 2.
『橋梁韓國語-베론 한국어 1』	베론 교재편찬위원회	도서출판 세림	2008. 3
『신표준 한국어 초급1.중급1』	베이징대 대외 한국어 교학 연구소	北京教學与研究出版社	2006. 7.

과거, 현재, 미래의 각 부문에서의 보완점 이전에 시제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점이 보이는 교재도 발견되었는데, 『이화 한국어1-1』(p.104)에서는 중국어 설명 부문에서 '시제'라는 문법 용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時制라는 용어로 한자어를 그대로 음으로 옮기는 번역을 하였는데, 이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라고 했을 때 심각한 오류이다. 중국어로 時制는 시간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夏時制'라는 것은 여름의 시간을 운용하는 제도인 서머타임을 말한다. 또한 '工時制'라는 것은 노동 시간 적용제를 뜻하는 법률적 용어이다. 이처럼 時制라는 것은 시간을 운용하는 법률적, 제도적 체

계를 뜻하는 것이지 동작의 시점을 나타내는 문법적 용어와는 거리가 멀다.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라면 이를 만들어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위와 같이 이미 중국어에서 법률 용어로 사용되는 것을 한자가 같다고 하여 차용한다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개연성이 있다.

동작의 시간적 시점을 학술적으로 논할 때 중국어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時態이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하겠다.[29] 각 한국어 교재에 관형격으로 실현되는 시간 표현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지만 이 연구의 논의 범위는 시간 표현 선어말어미와 관형사형어미로 국한한다.

제 1 절 과거 시간 표현 문법 분석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재에서는 과거시제를 설명할 때 '-었-'을 기술한다. 『이화 한국어1-1』(p.104)에서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에 대해 중국어로 "爲過去時制詞尾, 表示某种情况或某种事情已經發生"로 설명하고 있다. 앞에서 時制는 온당치 않고 '時態'로 써야 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또한, 『이화 한국어 2-1』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자신의 의사를 한국어로 표현한다는 데에만 중점을 두어, 한국어 문장을 독해하거나, 일상 회화와 듣기 상황에서 살펴야 할 중요한 설명이 빠졌다. 제한된 지면에서 고려할 점을 모두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은 일견 타당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으나, 한국어로 과거시제 문장을 작문 할 때 한국어 시간 표현 선어말어미 '-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동사의 기본형에 선어말어미 '-었-'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과거시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석을 통해서라도 언급했어야 한다고 본다. 수준별 교재이기에 고급 교재에 사용되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이정도 수준의 어휘들과 단어들이 언급되는 교재라면, 주석이나 보충 설명이라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각 단원의 후반 부분에 듣기를 연습하

29) 『가나다 korean for chinese』(가나다 한국어학원 교재연구회, 2010. 한글파크) 교재들에서는 '時態'라고 올바르게 설명을 하였다.

는 부분이 있는데, '-었-'이 동사의 기본형과 결합하였을 때 적지 않은 부분에서 현재형을 나타낸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것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일종의 공식처럼 '-었-'이 과거시제라는 고정관념이 굳어진다면, 학습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불러 올 수 있다. 작문과 말하기의 발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심각한 문제는 아닐 수 있으나, 듣기나 독해와 같이 수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다. 지면 사정과 학생들의 학업정도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었-'이 과거시제를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줘야 한다. 이 부분의 중국어 설명을 번역해 보자면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이 이미 발생한 것"을 뜻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 중국어의 특수성에 기인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중국어에서 과거의 의미를 만들 수 있는 대표적 조사(助詞)로 '了, 過'가 있는데 이러한 조사들은 형용사와 결합할 수가 없다. 또한 사건이나 상황이라는 것은 동사에 대한 고려만 있을 뿐 형용사에 대한 고려는 없다. 형용사의 기본형 자체가 과거의 문법적 요소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때는 '-었-'이 형용사와도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충해야 한다. 이는 작문 부문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신표준 한국어 초급』 82p의 연습문제에서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를 연습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초급의 교재답게 시간 표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초·중급 교재 전체에 걸쳐 과거시제 개념에 대한 풀이를 연계하여야 한다. 중급 교재에서는 과거 시간 표시 어휘가 없는 상태에서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이 쓰임으로써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경우와 고급과정에서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이 쓰였지만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경우에 대한 발전적 학습과정이 필요했으나 『신표준 한국어』 전체에는 이러한 유기적 과정이 없다 .

중국어는 독립어이기에 중국어에서 과거 시간 표지를 나타내는 문법적 도구인 완료태와 경험태, 변화태로써 과거 의미로 형용사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형용사 서술어에 과거시제 선어말어미가 사용되어 과거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형용사에 선어말어미가 결

합하는 문법에 대해 이질감을 느낄 수 있어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명시해 놓아야 했다. 『신표준 한국어 초급』 (p.83)에서는 선어말어미 '-었-'과 결합해 현재의 의미가 될 수도 있는 동사 서술어를 혼합해 모두 과거의 의미가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연습문제에서 제시어 '알다'에 선어말어미 '-었-'을 결합하여 '알았다'라는 구문을 만들도록 하는데, 이 경우 '알았다'는 과거의 뜻이 아니고 현재 의미에 가깝다. '알다'는 <표4>의 동사 분류에 제시한 바와 같이 상태변화 이후 지속되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이기에 과거의 의미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동사가 과거의 의미를 가진 상태로 쓰이려면 '알았었다' 형태의 대과거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형용사의 과거형 개념을 반영한 한국어 교재로『중국인을 위한 한국어』(강남대학교 출판부)가 있다.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14과 연습문제를 보면, 여러 형용사의 다양한 어미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의 활용도 있다. 이러한 시도의 의의는 첨가어인 한국어의 특징과 형용사의 과거형도 있는 한국어의 특징을 중국인에게 효과적으로 교육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습문제의 제시어로 동사 '입다'가 들어간 것은 아쉽다. '입다'라는 동사가 과거형을 교육하는 부분에 혼재되어 있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종류의 동사들은 앞의 제2장 한·중 과거 시간 표지 비교에서 설명한 것처럼 과거 시간 표현 선어말어미 '-었-'과 결합하여, 현재 상태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10>의 (A)부분은 '입었어요'가 되는데, 교재의 앞 부분에 '-었-'이 동사와 형용사의 기본형과 결합하여 과거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개념정리를 하고, 연습문제에서는 현재의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동사의 활용을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동사의 활용에 대한 개념은 차후 학습할 수 있도록 남겨두고, 연습문제를 따로 만드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하겠다. 물론 과거 시간 표현 선어말어미 '-었-'과 결합하여 현재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에 대하여 교사가 따로 교수할 수도 있겠으나 교재에서 최소한의 주석이라도 달아 주는 것이 학습자를 위한 교재 집필이라고 하겠다.

<표10>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p.142) 연습문제

	-아/어요	-았/었어요	-아/어서	-ㅂ/습니다
춥다				
덥다				
쉽다				
어렵다				
맵다				
입다		A		

『베론 한국어1 』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점이 보인다. 38쪽 연습문제 2-3번 빈칸 채우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 사람은 노민 씨입니다.
> → 치마를 _____ 사람은 노민 씨입니다. (입은/입을)

이 문제에서 답을 골라내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 다만 '입다' 동사는 그 특성상 과거나 현재의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문장은 현재 치마를 입고 있는 사람이 노민 씨라는 의미로서 입는 동작의 과거 시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치마를 입은 사람은 노민 씨입니다."라는 문장은 지금 치마를 입고 있는 노민 씨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발화시 이전의 일정한 시각에 치마를 입는 동작을 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태와 동작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 동사를 다른 부류의 동사들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다. 명확한 설명을 부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심화과정에서 따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베론 한국어』 전체를 검토해 보아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이나 독립된 단원에서의 설명은 없다. 의미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과거로 시간 표현을 한정하는 상황이라면 '입었던'이나 '입었었던'

을 제시하는 단원에 함께 교육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된다.

『가나다 korean for chinese 1』(p.100)에서는 기본형의 동사 어간이 양성모음 'ㅏ, ㅗ'의 경우 '-았다'의 형태로 결합되고, 'ㅏ, ㅗ'를 제외한 음성모음과는 '-었다'가 결합함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하다' 기본형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연습문제에만 이것을 잠깐 다루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남서울 한국어』 제9과,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제5과에서는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하다'의 기본형과 선어말어미 '-였-'의 결합형인 '했다'. '하였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선어말어미 '-었-'이 결합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다"라는 문장을 과거형으로 전환할 경우 서술어 '하시다'에서 동사의 어간 '하-'와 높임말어미인 '-시-'의 뒤에 위치해 '하시었다' 또는 '하셨다'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위치에 대하여 확실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했시다, 해셨다, 핬시다' 등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화 한국어 2-1』(p.133)에서는 과거 시간 표현의 관형사형어미 '-(으)ㄴ'에 대하여 "跟在動詞后面修飾名詞, 表示該事情或行爲發生在過去"(동사의 뒤에 위치하여 명사를 꾸며, 이 일이나 행위가 과거에 발생했다는 것을 표시한다.)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136쪽에서는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어미 '-던'을 "'-던'是指過去的行爲, 事件, 或再次想起那个行爲, 并且哪个行爲一直反夏到過去的某一時刻."('-던'은 과거의 행위나 사건 혹은 자주 생각나는 것, 또한 어떠한 행위가 과거의 일정한 시간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와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서술격조사 '-이다'형이 결합한 서술어에서 관형사형어미 '-던'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는 의미적인 관점의 설명은 훌륭했으나 문법적 관점의 설명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표제어에 'V/A+던'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서술격 조사 '-이-'를 추가하여 제시하면 문법적 · 의미적으로 완전한 설명이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현재 시간 표현 문법 분석

현재시제는 일상생활의 반복적 사실, 사실의 진술, 불변의 진리 등 과거나 미래의 의미가 아닌 것 모두를 포함한다. 현재의 시간 표시에 관해서는 국어 교재의 시제 교육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30] 다만 현재 시간 표현 관형사형 어미는 문법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나다 korean for chinese』(130p)에서는 '동사 -는- 명사' 형태로 관형사절의 현재시제를 설명한다. 다만 이 부분에서 쉽게 혼동할 수 있는 것 대한 주의 환기가 없는데 이에 대한 부가 설명이 필요하다.

(16) a. 모자를 쓰는 사람
b 버스를 타는 사장님
c 나이키 가방을 메는 학생

(16a)의 구문만으로는 이 학생이 평소에 모자를 쓰는 습관이 있는 학생인지 아니면 지금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16b)에서도 사장님이 검소해서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지 아니면 지금 버스를 타는 중인지 알 길이 없다. (16c)에서도 이 학생이 현재 나이키 가방을 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평소 나이키 가방을 메는 학생인지 모호하다. 관형사형어미 '-는'이 동작 동사 뒤에 반드시 결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 동사의 뒤에 결합하여 반복적 사실이나 현재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는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형태적 측면에서 선어말어미로서의 '-ㄴ-'은 현재시제를 나타내지만 '본 영화', '딴 돈' 등과 같은 구문에서는 관형사형어미로서 과거 사실을 나타낸다는 설명도 필요하다. 이는 외국인들에게는 쉽게 혼동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 물론 위 교재는 과거 시간 표현을 나

30) 다만 진행상인 '-고 있다'의 표현을 많은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상 범주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기에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타내는 관형사형어미와 현재 시간 표현을 나타내는 관형사형어미에 대해서 연속하여 설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혼동을 최소화하려고 하였으며, 연습문제에서 이것을 연결하여 연습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

제 3 절 미래 시간 표현 문법 분석

미래시제는 현재 한국어 학계에서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적지 않은 한국어 문법학자들은 미래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인을 위한 교재에서도 미래시제에 대한 설명을 이러한 관점에서 전개하고 있는 교재 적지 않다. 어떠한 교재에서는 현재 2분법 체계가 우세한 학계의 영향을 받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에도 이를 반영하여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겠-'을 양태의 요소로만 설명하려 한다. 『이화 한국어 2-1』에서는 '-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형용사/동사 + 겠'
'-겠-'爲終結詞尾，用于根据当時情况或狀態來進行推測.

중국어 설명을 번역하면 "'-겠'은 종결어미로 당시의 상황이나 상태를 추측한다."이다. 그러나 '-겠-'은 추측이나 의지 의미 외에 적지 않은 부분에서 순수한 미래가 아니면 해석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겠-'이 출현한다고 해서, 반드시 미래로 해석된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중국어의 미래 의미를 한국어로 표현할 때 '-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앞의 과거시제와는 반대로, 시제의 독해와 듣기 부문에서는 유용하나 작문이나 말하기 부문에서는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화 한국어』에서는 과거시제를 설명할 때 한국어 작문이라는 한 부문만을 고려하여 듣기와 독해 부문에 대한 고려를 등한시하였는데, 미래시제에서는 작문 부문을 고려하지 못하고 독해와 듣기 부문에 치중하여 '-겠-'를 설명하고자 한 문제점이 보인다. 또한 '-겠-'이 쓰인 예문과 예제를 일기예보 상황 표현 구문으로 들었는데 이때의

예문과 예제는 모두 미래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추측에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표현이 모두 가능하지만 예정의 양태는 미래로 실현될 수밖에 없다.

(17) a. 8월에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시겠습니다.
b.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17a)는 예정이나 확정된 사실로 실현되지 않았거나 혹은 맞지 않은 사실이라고 해도 미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문장이다. 또한 교재에 쓰인 (17b) 문장이 확신에 가까운 추측이나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미래를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화 한국어』의 '-겠-'에 대한 중국어 설명은 효율적인 설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연습문제와 예제도 미래 문장만을 제시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가나다 korean for chinese1』에서는 '-겠-'에 대해 "表示說話者的意志或將來時。主語爲第2,3人称時表示說話人的推測。"(화자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의지나 미래시제, 주어가 2인칭이나 3인칭일 때는 화자의 추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어의 인칭에 따라 그 의미를 세분화시킨 분류는 적절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설명에는 심각한 오류가 존재한다.[31] 위의 <표9>에서 설명한 대로 1인칭 주어가 아닐 경우에는 대부분 추측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3인칭 주어가 쓰일 경우에도 추측이나 추측의 강도를 더한 확신을 뛰어넘는 예정된 사실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미래시제로 쓰인다. 이 책의 기술을 따르면 주어가 3인칭일 경우에 시제를 한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내일 오후 10:00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겠습니다.'라든가 '내일 한국 국가 대표팀이 5:00 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를 가지겠습니다.' 등과 같이 예정의 양태로 쓰일 경우 3인칭 주어일지라도 미래로만 쓰일 수 있다.

『남서울 한국어』 제8과의 설명에서는 1인칭과 2인칭에서는 의지를 나타

31) 『가나다 한국어2』 15과에서도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지는 '-ㄹ 것이다'를 설명하면서 주어가 1인칭일 경우는 의지, 3인칭일 경우에는 추측을 나타낸다는 불합리한 설명을 반복하고 있다.

내고, 3인칭에서는 추측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도 적합하지 않다. 『가나다 korean for chinese』와 『남서울 한국어』에서 공통적으로 1인칭은 의지나 미래를 나타낸다고 하고 있고, 2인칭에 대한 견해는 엇갈리나 3인칭은 추측을 나타낸다고 하고 있다. "내가 이길 수 있겠어요?'라는 문장의 주어는 1인칭임에도 불구하고 추측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동사와 선어말어미 '-겠-'이 투사하는 대상이 1인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도 위 책들에 나온 설명법들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다른 많은 한국어 교재에서도 거의 대동소이한 오류들이 존재한다. 이는 상호 참조를 통한 교재편찬에 그 원인이 있어 보이는데,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의 번역판인 『베론 한국어1』 113쪽에서도, 베이징대 외국어연구원 출판 교재인 『신표준 한국어』에서도 역시 1인칭에서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인칭과 양태의 관계는 1인칭 주어 문장에서 의지의 양태가 비교적 높게 나타날 뿐이고, 3인칭 주어 문장에서 추측의 양태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빈도의 문제이지 주어의 인칭과 필연적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의 제2과 연습문제에서 '-겠-'의 추측 용법에 대한 심층연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과거 추측에서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과 병행하여 쓰이는 예를 들고 이를 연습문제를 통해 실현함으로써 '-겠-'의 용법을 미래로만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다만, '-겠-'의 용법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겠-'이 추측으로 쓰일 경우 과거, 현재, 미래에 모두 사용 가능하나, 예정과 의지의 양태로 쓰일 경우 '-겠-'은 미래로 한정된다.

관형사형어미에 대해 보자면『베론 한국어 1』(37p)의 미래 시간 표현 관형사형어미 '-(으)ㄹ'의 중국어 설명은 "表示未來動作的推測"(미래 동작의 추측을 나타낸다)이다. 그런데 이것은 부적합한 설명이다. 앞서 '-겠-'이 각 양태의 용법에 따라 시제가 한정되는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특히 추측의 경우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제에 사용이 가능하다. 관형사형어미 '-(으)ㄹ' 마찬가지로 양태에 따른 시제의 제한이 있다. 미래로 한정되는

경우는 확신과 예정의 양태에 한하게 되고, 이는 관형사형어미 '-(으)ㄹ'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미래라는 틀 안에 묶어 확정한 것도 문제가 있으나, 미래의 추측이라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어 보인다.

HANSUNG UNIVERSITY

제 4 장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시간 표현 문법 교육 자료 구성

이 장에서는 3장의 교재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자료에서 분명하게 명기하여야 하는 한국어 시간 표현 내용을 상술하고자 한다.

회상의 의미를 가지는 선어말어미 '-더-'에 관해서는 교재에서 다루는 내용은 많지 않았다. 여러 중국어 문법서나 번역 전문 서적에서 '-더-'는 '來着'으로 번역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타당하지 않은 번역이 새로이 편찬되는 한국어 교재에 반영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그 불합리성에 대해 상술하고, '-더-'에 대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장에서 교재에 제시된 미래시제와 현재시제의 오류를 찾아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4장에서는 한국어 교재 전체에서 발견되는 오류들과 교재들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상술하고자 한다.

제 1 절 과거 시간 표현 문법 교육 자료 구성

과거 시간 표현 선어말어미 '-었-'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지도할 때 유의해야 하는 것은 형용사에 과거형 선어말어미 '-었-'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과 어떠한 동사는 '-었-'의 결합에도 불구하고 문맥에 따라 현재시제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표11> '-었-'의 설명을 위한 유의사항

1. 과거시제의 문법적 형태를 가졌으나 현재시제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분석 교재의 오류 유형	1.현재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들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음. 2.현재시제를 나타내는 동사들에 대한 분류에서 문제를 보임. <표3>의 2와 4에 해당하는 동사의 혼재. 3.선어말어미 '-었-'이 과거 의미를 나타낸다는 개념 정리 후 연습문제에서는 현재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들이 자주 등장함.[32]
교재 구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	<표3>에서 제시한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과 결합하였을 때 현재시제와 과거시제 모두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 종류 1.왕래발착동사 2.형용사 3.상태변화와 상태변화 이후 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4.상태변화와 동작의 두 가지 의미 모두로 해석이 가능한 동사
교재구성의 구체적 대안 및 해결 방안	상기와 같은 동사에서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과 결합하였으나 현재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1.왕래발착동사(가다, 오다, 떠나다, 출발하다) 2.형용사(늙다, 익다, 닮다) 3.상태 변화와 상태변화 이후 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결혼하다. 열리다, 켜지다, 꺼지다, 다치다, 굵히다, 밝아지다, 어두워지다. 알다) 4. 두 가지 의미로 모두 해석이 가능한 동사(입다, 신다, 타다, 메다) 이 동사를 서술어로 사용하여 과거시제를 명확히 표시하고자 할 경우 대과거시제 '-었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명기한다. 다만 이 경우 선행되어야 할 것은 대과거시제 표시 선어말어미 '-었었-' 의미를 확실하게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2. 형용사에도 과거시제를 사용할 수 있다	
분석 교재의 오류 유형	1.과거시제 선어말어미가 중국어와는 다르게 형용사와도 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환기하지 못함. 2.형용사 중에서도 과거시제 선어말어미와 결합하여 현재시제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명기를 하지 않음.
교재 구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	중국어의 과거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적 조사 '了'는 형용사 뒤에 위치할 수 있지만 '過'는 그렇지 못하다.
교재구성의 구체적 대안 및 해결 방안	1.주석이나 문법 설명 부분에 형용사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 것을 명확히 제시한다. 2.형용사 가운데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과거시제형태가 결합하여도 현재시제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을 명기한다. 예) 늙었다. 익었다. 닮았다.

<표12> 선어말어미의 결합 순서

문제점	1.한국어의 어미들에 대한 선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2.동사 기본형과 '-었-'과의 결합을 지속적으로 연습하였을 경우, 예외적 경우가 나타날 경우 이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으면 혼란이 올 수가 있음
수정 방안	1. '-었-'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동사/형용사의 어간 + 높임선어말어미(- 시-) + -었- + 어말어미' 2.'동사 어간 + 시제선어말어미 + 양태선어말어미 + 어말어미' 3.시제 선어말어미는 높임 선어말어미 뒤에 위치해야 하고 양태 선어말어미의 앞에 위치해야 한다.
예문	식사하셨습니까? 회사 다녀오셨어요? 혜정이는 젊었을 때 많이 예뻤겠다.

32)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2008 강남대학교) 14과 연습문제 참조.

<표13> '-었-'의 단계별 교육 자료 구성 방안

초급	교육 목표	가.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마지막 음절 모음의 성격이 음성모음인가 양성모음인가에 따른 '-었/았-'의 변화를 익힌다. 나. 형용사에도 과거형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유의 사항	가. 동사의 기본형이 '하다'인 경우 과거 시간 표현 선어말 어미가 실현된 형태는 '했다'이고, '가다'는 '갔다'가 된다. 두 경우를 예외적으로 설명해 '핬다'나 '갰다' 등의 오류가 발생할 개연성을 줄여야 한다.한국어의 어휘 변천과정을 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괴롭다', '외롭다' '애처롭다'등의 과거형 '괴로웠다', '외로웠다', '애처로웠다'를 예외 규정으로 두어야 한다. 이것이 '외우다'의 과거형이 '외웠다'의 형태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나. 중국어의 대표적인 과거 시간 표현인 경험태는 형용사와 결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국인 초급 학습자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다.
	예시	내리다→내렸다, 오르다→올랐다, 피다→피었다, 하다→했다, 가다→갔다, 사다→샀다, 자다→잤다, 먹다→ 먹었다 예쁘다→예뻤다, 뚱뚱하다→뚱뚱했다, 괴롭다→괴로웠다, 외우다→외웠다, 곱다→고왔다, 돕다→도왔다
	중국어 설명	가. '-었-'表示过去时态的韩语语尾, 动词词干是以元音'ㅏ,ㅗ'结尾的情况, 就以'-았-'的形式出现, 如果动词词干是以元音"ㅓ,ㅜ,ㅣ"结尾的情况, 就以'-었-'形式出现.但例外的是' (动词词干)+하다'类动词的情况是与'-였-'结合, 虽然以'하였다'的形式出现, 但实际使用时以'했다'的缩写形式出现, 此变化为固定用法。但还有个别不规则动词的过去式的变化。例如：原形是'괴롭다'过去式形式为'괴로웠다'.原形是'외롭다'过去式形式为'외로웠다'.原形是'애처롭다'过去式形式为'애처로웠다'详细内容参考不规则动词的变化规律。

		나.中国语的形容词不可以和中国语的过去时间表现中的的经验态（경험태）‘过’相结合，但是韩语中的形容词可以与表示过去时态的韩语语尾（‘-었-’）相结合，表示韩国语形容词的过去的状态。除此之外，中国语过去时间表现形式里中具有代表性的经验态（경험태）与形容词是不可以相结的。所以，对于中国人在学习韩国语的初级阶段时立场来看是一个生疏的概念。
중급	교육 목표	가. ‘-었-’이 중국어의 경험태와 완료태와의 상이점과 공통점에 비추어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시제 관련 문장을 번역할 수 있게 한다. 나. 작문할 때 각 문법 요소들 간의 위치적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한다.
	유의 사항	가. 선어말어미 ‘-었-’이 중국어의 경험태, 완료태와 치환될 수 있으나 언어적 환경에 따라 ‘-었-’이 경험태나 완료태로 치환되지 않을 수도 있고, 중국어의 완료태는 과거시제에만 한정되지 않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나. 각 문법 요소들 간의 위치적 선후 관계를 아래와 같이 분명히 알도록 한다. 시제 자질 좌 우선 원리와 상 자질 우 우선 원리[33]에 따라 다음과 같다. ‘동사 어간+시제 선어말어미+양태 선어말어미+종결어미’ ‘동사 어간+높임 선어말어미+시제 선어말어미+종결어미’ 그리고 시간 표현 관형사형어미와 같이 쓰일 경우, 시간 표현 관형사형어미 앞에 위치한다.
	예시	가. 吃了饭吗？→식사했어? 去过美国吗？→미국 가봤어? 咱们吃了饭去看电影吧→우리 밥먹고 영화봅시다. (이 경우 완료태인데 미래 시간 표현일 뿐만 아니라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 나. 먹었던 밥(과거 시간 표현 관형사형어미가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후에 위치하는 경우)

		아팠겠어요?(동사 어간+시제선어말어미+양태선어말어미+종결어미) 식사는 하셨어요?(동사 어간+높임 선어말어미+시제 선어말어미+종결어미)
	중국어 설명	가.韩国语的先语末语尾‘-었-’可以和中国语的经验态（경험태）和完成态（완료태）进行互换, 但是根据语言环境的变化, 也有不可以进行互换的情况。此外, 要注意中国语的完成态（완료태）不只局限为过去时态。 나. 确定每个语法元素之间的先后位置关系。 *动词原形（动词词干）+时态先语末语尾+样态先语末语尾+叙述形终结语尾‘-다’。 *动词原形（动词词干）+敬语体先语末语尾‘-(으)시-’+过去式先语末语尾‘-었-’+叙述形终结语尾‘-습니다’.
고급	교육 목표	동사의 특성에 따라 ‘-었-’과 결합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재의 시간 표시 현상들에 대해 숙지하고 그 원리를 이해한다.
	유의 사항	동사의 특성에 따라 현재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들의 종류가 있다. 이것은 동사 고유의 특질에 따라 생성되는 현상이다.
	예시	그는 결혼했어요.(과거시제 선어말어미와 동사가 결합했음에도, 그는 미혼이 아니라는 현재의 의미이다.) 우리 어머니 왜이렇게 늙으셨지?(이는 어떤 상태의 변화가 있은 후 상태가 지속되는 동사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청바지를 입으셨네요.(이는 동사가 상태와 동작의 두 의미를 가진 중의적 동사이기에 나타나는 특성이다.)
	중국어 설명	根据动词的特性, 有一部分动词虽然以过去时态的形式出现, 但却表示的是现在时态。这是因该动词自身固有的特点而产生的一种现象。

본고에서는 과거 시간 표현을 설명할 때, 자신의 의사를 한국어로 표현하는 관점에서 선어말어미 '-었-'이 과거 시간의 의미로 작문에 쓰일 수 있음을 기술하는 현 한국어 교재들의 관점을 지지하나, 듣기와 독해 등의 한국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었-'이 현재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병기해야 한다는 점을 견지하고자 한다.

『신표준 한국어 초급』(p.78)에서는 날짜, 요일 표현과 함께 과거 시간 표현 선어말어미 '-었/았-'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다. 이는 시간의 명확한 구분을 기준으로 과거 시간 표시를 설명하고 있기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시간의 명확한 표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시제 의미가 나타나는 경우, 과거시제 문법 표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의미가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과거시제 선어말어미와 결합하였는데도 현재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 동사의 경우를 학습 단계별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 교육 방안이 될 것이다.

학습 단계에 따라 앞에서 설명한 <표3>의 분류를 기준으로 과거 시간 표현 선어말어미 '-었-'이 어떠한 경우에 현재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동사를 특성별로 왕래발착동사, 형용사성 동사, 상태변화 이후 상태변화의 지속성을 가지는 동사,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동사 등 네 가지로 분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34] 이는 고급 학습자를 위한 교재에 구성되어야 하는 내용인데, 왕래발착동사의 경우는 현재 상태를 중점으로 문맥에 맞추어 다른 의미를 표현하는 방향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갔다' 구문의 경우 독해 문장이나 듣기 예제 등을 통해서 현재 간 상태에 중점을 두는 것인지 아니면 간 동작에 중점을 둔 것인지를 연습시키는 방향으로 교재를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아래와 같은 문장을 듣기나 문법 부문의 예제로 사용하는 것을 제시한

33) 고창수(2002:90~116) 『자질연산문법이론』 참조

34) 이재성(2001)에서는 '-었-'이 완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현상을 나타낸다고 보았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었-'이 결합하는 동사가 가진 고유의 특질로 보았다. 이는 이러한 동사들이 중국어나 다른 외국어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설명하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

(18) 다음 중 동작을 가리키는 시점이 다른 것은?

a. 철수는 어제 집에 갔다.

b. 어머니가 집에 오셨다.

c. 체육과는 이미 출발했어.

d.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이러한 문제를 교재의 연습문제나 예제로 사용하면, 독해나 듣기 시 중국인 학생들에게 '-었-'이 쓰였을 때 다양한 각도에서 고찰할 수 있게 하는 사유방식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이 중국어에서는 어떻게 대응되는가, 또는 한국어의 '-었-'을 포함한 문장이 중국어로 번역될 때 어떠한 문법적 도구[35]를 써서 대응시켜야 하는가를 고려하면 중국인 학습자의 이해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질적 어순을 가진 언어를 교육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어순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개념 확립과 문법적 법칙의 예외 과정에 대한 숙지이다.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순이고 그 외의 보어나 다른 문장 성분이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중국어와는 거리가 있는 언어이다. 이것은 시제를 표현하는 데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중국어에서 과거의 시점을 나타내는 조사는 서술어의 가장 뒤에 위치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국어와의 공통점을 발견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한국어 교재에서는 이 위치를 명확하게 지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3장에서 논의한『가나다 한국어 korean for chinese 』(p.100)을 보면, 서술어구에서 높임의 선어말어미가 쓰일 경우 선어말어미 '-었-'은 동사 어간과 직접 결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높임의 선어말어미와 결합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것은 '하다'라는 동사의 기본형이 과거 시간 표현 선어말어미와 결합하게 되면, '했다'라는 형태로 실현

35) 완료태의 了, 경험태의 過 등이 한국어의 과거 시간 표현 선어말어미 '-었-'과 호환될 수 있다.

되는데, 이때 높임의 선어말어미와 결합하게 되는 경우 선어말어미의 결합 순서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학습자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과거 시간 표현 선어말어미를 설명할 때 '-었-'의 위치는 '동사 어간+높임의 선어말어미(-시-)+었+종결어미(-습니다, -아요/어요 등)'로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다. 단지 예제와 경험으로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견해는 매우 안이한 생각이다. 개념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습관화된 오류는 이것을 교정할 초기 학습 기회를 잃게 되면 나중에 이러한 습관을 교정하려 해도 이에 대한 개념의 명확한 표기가 되어있는 자료가 존재 하지 않으면 교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또한, 한국어의 과거 시간 표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현재와는 단절되어 있는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었었-'은 중국어의 경험태 '過'로 이해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어의 각 과거 시간 표현 선어말어미가 중국어에서 어떠한 단어들과 유사한지 또는 대부분의 경우 치환될 수 있는지를 정리하여 이를 교재에 반영해야 한다.

과거 시간 표현 선어말어미 '-었-'과 결합하지만 현재시제와 과거시제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동사들에 대해서 교육할 때 명확하게 과거 사건임을 표현할 때는 선어말어미 '-었었-'을 사용하게 된다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 다만 시제는 명확한 과거이지만 '-었었-'이 가지는 특유의 성질인 현재와 단절된 과거 경험이라는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표14> '-었었-'의 단계별 교육 자료 구성 방안

초급	교육 목표	가. 앞에 위치하는 어간의 마지막 음절이 양성모음인가 음성모음인가에 따라 결합 형태를 숙지한다. 나. 대략적인 의미 파악을 한다. 즉 의미 파악 1단계로서 과거를 기준으로 더욱 먼 과거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유의 사항	가. 양성 모음이 위치할 경우, '-았었-' 음성 모음이 위치할 경우 '-었었-'이 된다. 다만 뒤의 '-었-'은 모음조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

		나. 초급 과정에서는 과거를 기준으로 더 먼 과거의 일정 시간 동한 행해진 것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예시	여기는 눈이 내렸었어요.(오래 전 과거에 여기에 눈이 내렸었다) 혜진이는 한번 결혼했었어.(오래 전 과거에 혜진이가 결혼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혼자이다) 나는 사천성에 한번 갔었어(오랜 전 과거에 사천성에 가 본 적이 있다) * 연습문제 1.다음 중 과거를 말하고 있는 문장은? ㄱ. 정민이는 결혼할거야 ㄴ. 정민이는 결혼했어. ㄷ. 정민이가 결혼한다. ㄹ. 정민이가 결혼했었어. (이 문제는 중급이나 고급에서는 '다음 문장들의 시제는 무엇입니까?'라고 하여 학습자가 각 항목에 대해 서술 답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결혼하다'라는 동사가 현재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다.)
	중국어 설명	가.阳性元音'ㅏ,ㅗ'为结尾的动词, 变形后的形态是'-았었-', 其它以'ㅓ,ㅜ,ㅣ'为结尾的动词, 变形后的形态是'-었었-'. 仅仅只不过是与后面的先语末语尾'-었-' 母音同化的现象没有任何变化 나.过去的过去的概念是在特定过去的基础上更向前的过去,强调的是现在的状态
중급	교육 목표	가. 의미 파악 2단계로 현재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과거 시간 표현 선어말어미 '-었-'과 어떻게 다른가 이해한다. 나. 현재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어감에 따라 중국어 경험태와 치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리고 중국어 경험태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연습을 한다.

	유의 사항	가. 과거를 기준으로 한 과거라는 개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었었-'과 결합된 서술어문의 의미는 현재와 단절된 상황이라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그는 결혼 했었어요.'는 현재는 독신의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작년 겨울에 여기가 추웠어요.'의 상황과, '예전에는 여기도 추웠었다.'라는 문장에서의 차이점은 예전이 작년보다 훨씬 먼 과거가 아니라 서술어구에 '-었었-'이 결합되어 이제 여기는 춥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이다. 나. 많은 학생들이 중국어의 경험태와 '-었었-', '-었-'을 구분없이 치환해서 사용한다. 그런데, 중국어의 경험태 가운데 현재와 단절되지 않은 경험은 '-었-'을 사용해 번역해야하고, 단절되어 있는 경험은 '-었었-'으로 치환이 가능하다.
	예시	가. 우리도 부자였었는데…….(지금은 부자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젊었을 때는 많이 힘들었었는데…….(지금은 힘들지 않다는 의미이다) 여기도 한때는 육지였었는데…….(지금은 육지가 아니라는 의미) 나. 我去過北京(나는 북경에 가 본 적이 있다.) 이 문장의 경우는 문맥에 따라 북경에 '갔었다'와 북경에 '갔었었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我結過婚(나는 결혼한 적이 있다) 이 의미는 예전에 결혼식을 올린 적이 있어서 지금 기혼자일수도 있고,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의미 해석은 문맥에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을 '-었-'을 사용해 '나는 결혼했다'로 번역하게 되면 치명적인 오번역이 된다.
	중국어 설명	가.在特定过去的基础上更向前的过去的概念上更进一步的强调现在的状态与和'-었었-'结合的动词所表示的状态完全不一样或者相反的 나.中国语的经验态(경험태)里过去和过去的过去并没有区别,中文里过去的过去很少用到,但是在韩国语文章里想要表达的意思不同准确的区分和使用'-었-'和 '-었었-'.

고급	교육 목표	현재형을 나타낼 수 있는 동사 부류와 결합하여 시제를 과거로 한정하지만, 단순히 과거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문법적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의미 파악 2단계까지 마쳤으면 자연스레 숙지가 될 수 있다.)
	유의 사항	시제를 과거로 한정하지만, 이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것을 환기시켜야 한다.
	예시	'나는 결혼했었다.'와 '나는 결혼(식을)한 적이 있다.'는 다른 문장이다. 첫 문장은 현재는 혼자임을 나타내고, 두 번째는 현재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상태인지 이혼한 상태인지 모르는 상황이다. '나는 그 버스를 탔었다.'라는 문장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지만, 이때도 시제는 과거로 한정되고 그 의미는 현재와 단절된다.
	중국어 설명	时态虽限定于过去时，要强调不管在哪些情况下所表达的是与'-었었-'结合的动词所表示的状态完全不一样或者相反的

<표15> 한-중 과거 시간 표현 문법 요소 대응

과거시제 어미	중국어 조사
-었-	了[36]，過
-었었-	過，過了
-더-	看來
-던	的

36) 王力(1946)에서는 '了'를 시간과 관련이 없는 완성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현재 한국어 교재의 고급 부분에 추가되어야 할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중의 하나는 회상을 나타내는 '-더-'이다. 서법(양태)을 중요시하는 경우에는, '-더-'가 발화될 때의 화자의 태도에 주목을 하게 되나, 시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간적인 거리감이 더 중요시된다. 선어말어미 '-더-'가 현재, 과거, 미래에 모두 쓰일 수는 있지만, 이 문장의 시제가 현재라고 해도, 이는 과거의 경험이나 깨달음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국인들은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선어말어미 '-더-'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이 문장 자체는 과거, 현재, 미래에 모두 쓰일 수 있으나, 이것은 모두 과거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상술해야 한다. 중국어로 이 선어말어미 '-더-'를 이러한 어감을 살려 근접하게 번역하려면 '看來'(~을 보아하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역시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 주절을 판단하는 접속어의 일종이다.

다수의 선어말어미 '-더-' 관련 연구에서 이것을 중국어 '來着'나 '過'로 옮기는 것을 설명하였으나 이것은 회상시제 '-더-'의 본질인 과거 사실의 경험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습관성이나 어조에만 주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더-'는 인칭, 시제, 어조 등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항목이므로 초급 단계에서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HANSUNG UNIVERSITY

<표16> '-더-'의 단계별 교육 자료 구성 방안

중급	교육 목표	가. '-더-'가 지닌 특별한 용법을 이해한다.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에 모두 쓰일 수 있지만, 이 문장의 판단의 근거는 과거에 있음을 인식한다. 나. '-더-'와 다른 문법적 요소의 위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한다.
	유의 사항	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항상 판단의 근거는 어떠한 경우라도 화자 자신의 과거의 깨달음임을 주지시킨다. 처음에는 문장의 생략된 것들을 모두 제시하고 이를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더-'를 이해하게 한다. 대부분 문장에서 판단의 주체인 나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발화자가 1인칭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발화자는 1인칭이다. 다만, 대부분의 문장에서 표면에 드러난 주어는 3인칭이다. 나. '-더-'의 위치적 관계 높임 선어말어미+시제 선어말어미+더+종결어미
	예시	가. 내가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하니, 정민이는 항상 몸이 아프더라→과거의 경험으로 보아하니 정민이는 항상 몸이 아프더라.→정민이는 항상 몸이 아프더라. 내가 과거의 전적들을 지켜보니 이번 월드컵에서는 브라질이 우승하겠더라.→과거의 전적들을 지켜보니 이번 월드컵에서는 브라질이 우승하겠더라.→이번 월드컵에서는 브라질이 우승하겠더라. 나. 김 군 아버님께서 몸이 편찮으시더라. 김 군 아버님께서 몸이 편찮으셨더라.
	중국어 설명	가. 主语是第一人称,是以自己的经历为基础去做出判断,但是더所在的文章里常常省略主语,但是主语依然是第一人称, 并且在大部分的句子中,形式上的主语是第三人称, 但却是由第一人称的经历和体会而来的.

		나. '더'的所在位置 : 时态先语末语尾 + 敬语体先语末语尾+ '-더-'
고급	교육 목표	가. '-더-'와 중국어의 현장과거진행태[37]와의 차이를 살펴보고 올바른 번역과 '-더-'를 사용한 작문을 능숙하게 한다. 나. 깨달음의 주체가 1인칭이라는 개념에 대해 숙지하고, 이를 통해 작문을 완성한다.
	유의 사항	가. 현재 대부분의 논문과 중국어 교재에서 '-더-'의 중국어 번역이 현장과거진행태 '來着'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심각한 오류이다. 현장과거진행태는 과거로 돌아가서, 화자가 과거에 있는 듯한 생동감을 주는 구어적 표현이다. 이는 '-더-'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그 문법적 의미도 우연하게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는 '看來, 看起來, 看樣子'가 '-더-'에 더욱 가깝다. 다만, 중국어의 '看來, 看起來, 看樣子'는 현재 정황이나 상황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아 한국어의 어감을 살려 번역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는 문맥과 어감에 따라야 할 사항이다. 나. 깨달음의 주체가 1인칭 주어이나 이는 문장에서 생략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시	가. 看來今年有台風。(보아하니 올해 태풍이 불 것 같더라.) 이 경우는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삼았기에, '-더-'를 사용해 번역 한다. 나. 만만치 않겠더라. 이때 1인칭 주어는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중국어 설명	가. '-더-'虽然是韩国语中特有的语法, 但是根据文脉和语感最恰当的中文对应解释是'看来, 看起来, 看样子'。 나. 回想, 经历, 感悟的主语是第一人称, 大部分韩国语里文章都是省略主语, 但隐藏的是第一人称

37)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에 진행된 행위를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 이를 중국어에서 현장과거진행태라고 한다. 현장과거진행태는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과거진행태라는 뜻이다.(허성도, 2007:531)

시간 표현을 나타내는 관형사형어미는 '-(으)ㄴ', '-는', '-(으)ㄹ', '-던' 이렇게 네가지 인데, 이중 과거 시간 표현을 나타내는데 사용 되는 것은 '-(으)ㄴ' '-던'이다. 본고에서는 관형사형 어미에 대한 개념을 초급과 중급에 걸쳐 완전히 숙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표17> 관형사형어미 '-(으)ㄴ', '-던'의 단계별 교육 자료 구성 방안

초급	교육 목표	'-(ㅇ)ㄴ'과 '-던'의 정확한 쓰임을 숙지한다.
	유의 사항	'-은'은 자음 뒤에서, '-ㄴ'은 모음 뒤에서 실현된다. '-던'은 과거에 습관적으로 행해졌던 행위들에 쓰이기도 하고, 또한 동사가 아닌,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와 결합하기도 한다. '-던'은 과거시제 선어말어미와 결합하여 '-었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시	어제 네가 마신 음료수, 네가 항상 마시던 음료수 착하던 철수, 착했은 철수(X) 내 정신적 지주이던 선생님 건강하셨던 할아버지, 따뜻했었던 겨울.
	중국어 설명	가. 冠形詞形語尾'-은'用在辅音后面, 例如 : '먹다' →'먹은', 冠形詞形語尾'-ㄴ'用在元音后面, 例如 : '가다' → '간'. 나. '-던'一般用于表现是过去习惯性的动作, 有时也能与形容词或者叙述性助词'-이-'相结合。'-던'有时也与过去时态先语末语尾相结合, 以'-었던'的形态出现.
중급	교육 목표	중국어 문장의 的의 다양한 용법 중 한국어 과거 표현 관형사형 어미로 치환될 수 있는 문장을 가려낼 수 있으며 이를 한국어로 바르게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유의 사항	중국어의 的는 많은 용법이 있다. 한국어의 시간 표현과 관련이 없는 관형사형어미도 모두 的로 옮길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 문

		장을 한국어로 옮기는 경우 문맥을 보고 的를 과거 시간 표현 관형사형어미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예시38)	唱過的歌。 - 불렀던 노래. 看過的書。 - 봤던 책. 喝過的水。 - 마셨던 물. 失去的机會。 - 잃어버린 기회. 중국어 원문에는 과거형 표시가 없으나, '失去'(잃어 버리다)라는 동사 특유의 성질에 기인해 과거로 인식했고 과거 표현 관형사형 어미 '-(ㅇ)ㄴ'으로 번역하였다.
	중국어 설명	与韩国语冠形词形语尾相对应的中国语解释可以用'的'来转换

HANSUNG UNIVERSITY

38) 『고려 중국어 사전』의 예문 참조.

제 2 절 현재 시간 표현 문법 교육 자료 구성

현재 시간 표현의 형태를 가지는 데도 불구하고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문장과 똑같은 형태의 문장에서도 동작의 의미와 능력이나 가능과 같은 양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독해를 위해 반드시 익혀야 하는 사항 중 하나이다.

(19) a. 내일이면 꿈에 그리던 집에 도착한다.
b. 여기를 다 휘어잡을 계획이 있다.
c. 민수는 영어를 한다.
d. 그는 집에 간다.

(19a)와 (19d)를 보면, 두 문장 모두 서술어의 형태는 같다. 그러나 (19a) 문장은 확실하게 미래의 일을 나타내며, (19d)는 현재의 일인지 미래의 일인지 모호하다. (19b)의 경우는 종속절의 시제가 미래이지만, 주절의 시제가 현재인 경우를 나타낸다.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뒤에 놓일 수도 있다. (19c)는 개인의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고, 현재의 동작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리고 <표4>에서 제시한 동사들은 현재 시간 표현 형태를 가질 경우 여러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20) a. 영희는 원피스를 입는다.
b. 영희는 원피스를 입고 있다.
c. 김 씨는 버스를 탄다.
d. 김 씨는 버스를 타고 있다.
e. 민수는 등산 가방을 멘다.
f. 민수는 등산 가방을 메고 있다.

(20a)의 '영희는 원피스를 입는다,'는 문장은 영희가 지금 원피스를 입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영희는 원피스를 입는 습관이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20b)는 원피스가 현재 영희에게 착용되어져 있는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한 지금 탈의실에서 원피스를 입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20c) 는 김 씨가 버스를 타는 습관이 있다는 의미와 김 씨가 현재 승차중이라는 의미 역시 가능하다. (20d)는 이 문장만 봐서는 승차중인지 아니면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 중인지 알 수가 없다. (20e, 20f)도 마찬가지로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20e)는 등산가방 메는 것을 좋아해서 평소에 자주 메고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메는 동작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20f)는 현재 등산 가방이 그의 등에 올려져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등에 올리고 있는 중인지 모른다.

이렇게 동사의 성질이 상태와 동작 모두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중의적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데 한국어 교재에서는 중국인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혼란을 미리 예측하여 이를 주석 형식으로라도 교재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가나다 한국어 korean for chinese 2』에서는 이러한 동사를 동작이 완료된 후 상태의 지속을 나타낸다고 표현했는데 이러한 표현은 동사의 분류로 보았을 때 온당치 않고, 또한 예를 들었던 동사들 역시 같이 묶을 수가 없는 동사들이었다. 한국어 교재 구성이나 한국어를 평가하는 문제 출제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표18> 선어말어미 '-는/ㄴ/∅-'의 단계별 교육 자료 구성 방안

초급	교육 목표	각각의 정확한 쓰임을 익힌다. 결합하는 동사 어간 마지막 음절의 형태에 따라 알맞은 형태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유의 사항	'-ㄴ-'은 모음 뒤에 결합하고, '-는-'은 자음 뒤에 결합한다. 다만 '살다'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ㄹ'이 탈락해, '산다'의 형태가 된다.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는 '-는/ㄴ-'은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지 못한다.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로 표현되는 현재시제는 '-∅-'라는 개념을 도입해 원형 그대로 쓰이는 것을 현재시제로 인정한다.
	예시	일을 한다. 밥을 먹는다. 밥을 볶는다. 물을 끓인다. 아름답다. 교수님이다.
	중국어 설명	'-ㄴ-'跟在元音后, '-는-'跟在辅音后。但'살다'是例外, ㄹ脱落而成为'산다'的形态。另外, 表示现在时态的先语末语尾'-는/ㄴ-'不能与叙述格助词'-이다-'相结合。以形容词或者叙述格助词来表现的现在时态, 则导入'-∅-'这个概念, 以原本的形态表现出来, 看做为现在时态。
중급	교육 목표	현재시제로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대해 이해한다.
	유의 사항	동사의 분류 중에서 왕래발착동사는 미래시제를 제외하고는 뒤에 오는 시간을 표현 할 수가 있다. 왕래발착동사와 결합하여, 현재형의 형태를 가지는 동사는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동사 자체에 예정이나 의지의 의미를 함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역시 현재 형태로 표현되지만 미래의 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
	예시	밥 먹으로 집에 간다. 셋 셀 동안 뛰어 온다.!!!(명령의 어조) 나 꼭 합격한다. 여기에서 2012년 올림픽이 열린다.

	중국어 설명	根据动语的分类，动词的中的往来动词，除了将来时态之外，还能表现在自己之后的时间。与往来动词相结合，表示现在时态的动词也能表达过去的意义。另外，动词本身具有预定或者表意志的意思时，既能表示现在，也能表示过去。
고급	교육 목표	현재 시간 표현 선어말어미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각기 다른 용법들을 익혀 표현의 외연을 확장한다.
	유의 사항	현재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용법과 미래의 시간을 나타내는 용법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는 용법을 구별하여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예시	지금 밥을 먹는다.(현재 상태나 동작의 용법) 나 밥 먹으러 집에 간다.(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 민수는 영어를 한다.(능력을 나타내는 용법) *연습문제 다음 문장 중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없는 경우는? ㄱ. 집에 간다. ㄴ. 문수는 중국어를 한다. ㄷ. 나는 지금 밥을 먹는다. ㄹ. 철수는 청바지를 입는다.
	중국어 설명	现在时态包括现在状态或者现在发生的动作,还可以表现未来时间的用法和表达自身的能力

현재시제 형태로 미래 시간 표현 용법은 현재형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들의 특유의 성질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동사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장에서 밝혔듯이 왕래발착동사는 시제 표시 선어말어미와 결합하여 한 시제 뒤의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이를 교재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존 한국어 교재에서 현재 시간 표현에 대하여 간략하게 다루거나 설명이 명쾌하지 않았던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다음 <표19>을 제시한다.

<표19> 현재 시간 표현 교육 자료 보충 항목

1. 현재시제 선어말어미'-는/ㄴ/Ø-'의 용법 분류	
용법1	현재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용법 (예) 지금 밥을 먹는다.
용법2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용법 (예) 나 내일 집에 도착한다.
용법3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 (예) 민수는 영어를 한다.
2. '-고 있다' 보조용언과 결합하여 상태, 진행의 두 의미가 나타나는 특정 동사39)	
특정 동사 예	영미는 스커트를 입고 있다. (1.입고 있는 동작을 하고 있다. 2.현재 옷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장건이는 신발을 신고 있다. (1.신고 있는 동작을 하고 있다. 2.현재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이다.)
	철수는 버스를 타고 있다. (1.승차중이다. 2.이미 버스를 타고 어딘가에 가고 있다)
	가방 메고 있는 승민이. (1.가방을 메는 중이다. 2.가방이 이미 착용되어 있는 상태이다)
설명	동사고유의 성질에 따른 현상이다
3. 형용사의 진행 의미를 표현할 때 주의 사항	
예문	-태희는 예쁘고 있다.(x) -태희는 점점 예뻐지고 있다(o)
설명	형용사의 기본형 자체로는 진행시제와 결합될 수가 없다. 다만 '-아/어지다'가 더해져 복합동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고 있다'와 결합이 가능하다.

39) 상(相)과 시제(時制)는 다른 관점에서 논의하여야 하지만, 본고에서는 교육적 관점에서 현재시제의

위의 표에서 현재의 용법으로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용법에 대해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특유의 성질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2장에서 밝혔듯이 왕래발착동사는 시제 표시 선어말어미와 결합하여 한 시제 뒤의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이를 교재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표20> 왕래발착동사의 시제 표시 교육 자료

왕래발착동사의 원 시제	의미적으로 가능한 시제	예시
과거	과거, 현재	1)민주는 어제 집에 갔다.(과거) 2) 가: 민주 어디있어? 나: 집에 왔어.(현재)
현재	현재, 미래	1) 가: 지금 뭐해? 나: 집에 간다.(현재) 2) 내일 거기 간다. 준비하고 있어.(미래)
미래	미래	- 제가 가겠어요(미래)

단 설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왕래발착동사가 선어말어미보다 한 시제 뒤로 쓰이는 경우에는, 동사 기본형 동사의 실현 이후, 그 동사의 실현과는 무관한 상황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틀 안에서 진행상에 대해 부가적 설명을 더하고자 한다.

제 3 절 미래 시간 표현 문법 교육 자료 구성

본고에서는 미래 시간 표현을 설명할 때는 추측, 예정, 의지 등의 양태를 나타낸다는 것과 순수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듣기, 독해 부문의 한국어를 수용하는 입장에서의 교육과, 작문 말하기 등의 발화 부문의 교육이 균형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였다. 양태에만 집중하여 교육받은 학생의 경우, 미래에 대해 발화하거나 표현할 때 '-겠-'을 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고, 양태 부문의 개념이 약하게 자리를 잡은 학습자의 경우는 독해할 때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독해나 듣기 훈련 부문에서는 '-겠-'이 과거, 현재, 미래의 경우를 모두 접하게 하는 방향으로, 말하기와 작문에서 미래사건이나 예정을 표현하고자 할 경우 '-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의지 양태에서도 '-겠-'은 미래로 쓰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각 양태별로 쓰일 수 있는 시제의 한계가 정해지는데, 이것이 시제라는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양태나 상으로만 미래를 설명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익섭(2000)에서는 한국어에 미래시제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으나, 양태만으로 설명되기에도 역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은 외국인을 위한 교육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21) a. 승객 여러분 비행기가 6:00에 출발하겠습니다.
b. 대통령 내외분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가나다 한국어 korean for chinese』의 설명에 따르자면, 2인칭이나 3인칭일 경우 선어말어미 '-겠-'은 추측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런데 위의 (21a, b)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주어의 성질에 관계없이, 때로는 양태의 성질이 나타나고 때로는 미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미래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 '-겠-'이 쓰인 문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미래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래시제에 대한 교재 구성은 학습자의 수준별로 발화 부분과 받아들이는 언어 양 부분에서 분리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고급 과정에서는 '-겠-'을 이용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미래시제가 아닌 과거시제나 현재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21> '-겠-'의 양태 용법별 시제의 한계

양태 부문	사용될 수 있는 시제
추측	과거, 현재, 미래
확신	과거, 현재, 미래
예정	미래
의지	미래

'-겠-'을 미래 시간 표현 선어말어미로 한정하지 않고 양태의 용법과 병행하여 설명하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겠-'이 과거시제에 쓰일 경우 과거 시간 표현 선어말어미 '-었-'과 병립하여 쓰이는 경우와, 진행상의 '-고 있다'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위의 표에 근거하여, 각각의 양태에 따라 시제를 한정함과 동시에, 추측이나 확신의 양태에서는 과거 시간 표현 선어말어미 '-었-'과 병행하여 쓰일 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주지가 필요하다.

(22) a. 이번 보고서 정말 힘든 주제였는데, 고생 많이 했겠다.
b. 17일 오후에 대회의실에서 사장단 회의가 열리겠습니다.
c. 지금쯤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겠지.

(22a, c)는 '-겠-'이 추측의 용법으로 쓰일 경우 미래시제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시제와 쓰일 수 있는 경우를 보여준다. 이때 '-겠-'은 과거, 현재를 나타내는 '-었-', '고 있다'와 병행하여 사용된다. 학습 단계에 따라

‘-겠-’의 용법에 따른 시제 영역별 구분이 필요한 것이다.

<표22> ‘-겠-’의 교육 자료 수정 방향

오류 내용	오류 개정의 이론적 배경	바람직한 수정 방향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 1인칭에서는 의지의 양태로 쓰이고 3인칭에서는 추측의 양태로 쓰인다고 제시하였다.	‘-겠-’이 추측이나 확신의 양태로 쓰이는 경우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제의 적용이 가능하나, 의지나 예정의 양태로 사용되는 경우 시제는 미래로 한정된다.	‘-겠-’의 추측의 양태와 미래시제로만 쓰이는 경우에 대한 분리 설명. 또한, 1인칭의 경우 의지, 3인칭에서는 추측이라는 경우는 빈도수의 차이라는 점을 명시해야한다.

<표23> ‘-겠-’의 단계별 교육 자료 구성 방안

초급	**교육 목표**	가. 한국어 문장에서 ‘-겠-’이 출현하였을 때 이를 해석할 수 있고,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나. 추측의 용법으로 쓰일 경우 ‘-겠-’과 다른 문법적 요소의 결합 순서를 정확하게 익힌다.
	유의 사항	가. 초급 과정에서 ‘-겠-’을 추측과 미래로 한정시켜 포괄된 범주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학습에 효과적이다. 나. 다른 문법 요소와 결합 순서를 정확히 알도록 한다. 동사 어간+높임 선어말어미+시제 선어말어미+겠+종결어미
	예시	지금 시간이면, 어머님이 이미 들어오셨겠네요.(추측의 의미이다. 결합 순서는

		'동사 어간+높임 선어말어미+시제 선어말어미+겠+종결어미'로 이루어져 있다.) *연습문제 1. '어머니께서, 가다, 시장에, 겠. 시, 었, 습니다'를 조합하여 올바른 문장을 만드세요.
	중국어 설명	가. '-겠-' 限定于推测和未来 나. 准确的位置关系 动词原形 + 敬语体先语末语尾 + 时态先语末语尾 + 겠
중급	**교육 목표**	'-겠-'의 용법에 따른 시제 제한을 할 수 있다.
	유의 사항	'-겠-'은 각 양태별로 사용될 수 있는 시제가 제한이 된다. 추측과 확신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제에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지, 다짐, 가능성 등의 양태는 시제가 미래로 한정된다.
	예시	1) 제가 그것을 꼭 해내겠어요.(의지, 미래) 2) 대통령께서는 오늘 중으로 도착하시겠습니다.(예정, 미래) 3) 여기를 보니 사고가 심각했었겠네요(추측, 과거) 4) 지금 소은이는 집에 가고 있겠네요.(추측, 현재)
	중국어 설명	根据'-겠-'的各种样态可使用的时态是限定的。推测和确信在过去, 现在, 将来时态中都可以使用。但是意志, 决心, 可能性等的样态只能用于未来时态。
고급	**교육 목표**	중국어로 된 문장이나, 중국인 학습자가 의도하는 의미를 자유롭게 '-겠-'을 사용하여 작문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한국어의 '-겠-'이 사용된 문장을 자유롭게 중국어로 옮길 수 있게 한다.

	유의 사항	초급 과정에서 추측과 미래로 '-겠-'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이해한 다음 단계로 한국어의 '-겠-'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번역할 때는 중국어로 크게 미래의 표현 종류인 '要, 將, 卽將, 將要' 중 하나 아니면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인 '可能, 肯定, 也許' 등으로 옮길 수 있다. 문맥과 어감에 적절한 조동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예시	1) 제가 그것을 꼭 해내겠어요.(我一定要做完這个) 2) 대통령께서는 오늘 중으로 도착하시겠습니다.(總統卽將今天回來) 3) 여기를 보니 사고가 심각했었겠네요(看來這儿,可能有大的車禍) 4) 지금 소은이는 집에 가고 있겠네요.(好像是小恩在回家)
	중국어 설명	在初级课程中以推测和未来来概括的'-겠-', 在翻译包含韩国语的'-겠-'所在句子时, 可以转换为中文里表现未来的"要,将, 即将, 将要"中的一个, 或者表推测的助动词"可能, 肯定 , 也许"等。应选择最符合文脉语境的助动词。

HANSUNG UNIVERSITY

제 5 장 결 론

본고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시간 표현 문법 요소인 선어말어미와 관형사형어미에 대한 교육 방법을 탐색하였다. 한국어 시간 표현 문법 요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행 중국어와 대응하는 관계를 제시하고,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해 시제 교육의 문제점을 살피고 시제 교육 자료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한국어 시간 표현 문법 요소가 어떻게 시제를 실현하는가를 살펴보았으며, 시간 표현 선어말어미와 관형사형어미를 중국인에게 교육할 때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가, 또 시제 표현에 있어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점과 유사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한국어 시제는 한국어 교육을 기준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었다. 한국어의 과거시제는 '-었-'에 의해 실현되며, 이것은 중국어의 변화태, 완료태, 경험태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시제는 중국어에서 평서문과 같은 개념이기에 어떠한 특정한 태로 표시할 수가 없다. 또한 현재시제 형태로 쓰이지만, 내용은 미래시제를 가리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동사의 특성에서 기인하기도 하고, 문맥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과거 시간 표현 '-었-'이 현재의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경우는 문맥보다는 동사의 특질에 의한 성질이 강하다. 본고에서는 이를 문법 교육 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4장에 실었다.

미래시제에 대하여 한국어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양태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도 하지만 일반인들의 인식 관념에 미래시제가 존재하며 교육적으로도 미래시제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 양태 개념으로만은 설명하기 힘든 미래의 확정된 사실을 가리키는 미래 시간 표현 선어말어미 '-겠-'의 용법도 발견할 수가 있었다. 한국어 교재에서도 미래 시간 표현 선어말어미 '-겠-'을 설명할 때, 1인칭 주어에서는 의지, 3인칭 주어에서는 추측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반례를 들어 주어의 인칭에 관계없

이 양태의 여부에 따라 시제의 범위가 결정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미래 시간 표현은 중국어의 임박태와 치환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가까운 미래에 한정된다. 먼 미래의 일은 중국어에서 표현할 때 평서형 문장에 시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욱 많다.

3장에서는 중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분석했는데, 현재 나와 있는 교재들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성격이 다른 여섯 종류의 교재를 선정해 분석하였다. 대체적으로 과거 시간 표현 부문에서는 커다란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어느 부분에서 이해를 명확하게 시키기 위한 주석과 보충 설명의 부족함을 상술했고, 현재 시간 표현 부분에서는 동사의 오분류에 따른 오류와, 미래 시간 표현에서는 인칭에 따른 양태의 분류가 확정적이 아님을 밝혔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시제 교육 자료 구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나 과거 시간 표현에서는 중국어 교재나 사전 등에 나와 있는 '-더-'를 번역하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다른 중국어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3장에서는 많은 교재들의 오류나 보완점을 중심으로 상술했다면, 4장에서는 교재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결여돼 있는 점이나 교재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위주로 서술했다. 3장에서 분석한 오류들에 대한 구체적인 교정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시간 표현을 나타내는 중요한 어미들에 대하여 한국어 단계별로 총괄적인 교육 목표, 유의 사항, 예시, 중국어 설명을 덧붙여 교육 자료 구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만, 한국어의 시간 표현 문법 요소는 상이나 양태의 범주와도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함께 살펴보아야 했으나 논의의 범위를 시간 표현 문법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상과 양태에 대한 논의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본고는 '-었-'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문장의 시제가 '-었-' 자체의 성질이라기보다는 동사의 특질에 기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들의 시간 표현 문법 설명의 오류를 밝혀내었으며 동시에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는 방안 그리고 한국어 교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고영근,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02.28 『문법과 텍스트』

_____, 구본관 집문당, 2008 『우리말 문법론』

고창구, 도서출판 월인, 2002 『자질연산문법이론』

김남미, 사피엔스21, 2010.07.10 『친절한 국어문법』

김민정, 영남대 교육대학원, 2011 학위논문(석사) 「현대국어 '-었-'에 관한 연구」

김은진, 충북대 대학원, 2011 학위논문(석사) 「현대국어 접속문의 시제 해석」

김중섭, 랭기지플러스, 2000.01.01『중국인을 위한 알기쉬운 한국어문법 (Paperback)

김차균, 태학사, 1999.04.30 『우리말의 시제 구조와 상 인식』

남기심, 탑출판사, 1989.01.01 『국어문법의 시제문제에 관한 연구』

남기심 · 고영근, 탑출판사, 1985 『표준국어 문법론』

랭기지플러스, 1998.01.01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입문』

문숙영, 서울대 대학원, 2005 학위논문(박사) 「한국어 시제 범주 연구」

민현식 외 3 명,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문화사, 2008.09.25 『한국어교육론』

박선영, 원광대 교육대학원, 2006 학위논문(석사) 「현대 국어의 시제형태소 '-었-, -는-, -겠-, -더-'에 관한 연구」

박이정 , 2010.03.22 『한국어 를 구문 교수방법 연구 충실』

방운규, 역락 , 2000 『중국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Paperback)

북경어언문화대학출판사, 2002.08.03 『실용중급한국어』(중 한)

서정수, 뿌리깊은나무, 1994.12.01 『국어 문법 』
서정수, 한국문화사, 1990.08.01 『국어 문법의 연구』
_____, 한양대학교출판부, 1996.01.01 『국어문법 』
서종학 이미향 , 태학사 , 2007.05.02 『한국어 교재론』
엄애경, 이담북스(이담BOOKS) , 2009.11.20 『한국어 문법』
오문의 류동춘 외 2 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0.01.01 『중국어학개론』
王芳, 상지대 대학원, 2007 학위논문(석사) 「한국어와 중국어 시제의 대조 연구」
이기용, 태학사, 1998.03.27 『시제와 양상:가능세계의 의미론』
이남순, 월인, 1998.12.15 『시제 상 서법』
이익섭,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03.20 『한국어 문법』
_____, 학연사, 1999.02.10 『국어 문법론 강의』
이재성, 국학자료원, 2001.03.20 『 한국어의 시제와 상』
이주행,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03.01『현대국어문법론』
임성은, 동국대 교육대학원, 2005 학위논문(석사) 현대 중국어 시제 연구」- 시태조사를 중심으로
조항록, 한국문화사, 2010.03.02 『한국어 교육정책론』
_____, 한국문화사, 2010.08.06 『한국어교육현장의 주요쟁점』
최지영, 이화여대 대학원, 2006 학위논문(석사) 「언어노출환경에 따른 중국인의 한국어 시제 습득 양상 연구」- 이주노동자와 기관학습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국제교류원, 충북대학교출판부, 2011.09.15 『한국어』
한동완, 태학사, 1996.09.15 『국어의 시제 연구』
허성도 외, 사람과책, 1997.09.09 『중국어 작문과 어법』
_____, 사람과책, 2005.11.30 『현대 중국어 어법의 이해』
홍종선 박주원 외 3 명, 박문사, 2009.09.01 『국어의 시제 상 서법』

2.분석 자료

가나다 한국어학원 교재연구회, 한글파크, 2010 『가나다 korean for chinese』

강남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강남대학교 출판부, 2008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남대학교출판부 , 2007.10.02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남서울 대학교 국제 문화교류원, 2008. 10 『남서울 한국어 』

북경대 대외 한어 교학 연구소, 2005 『신표준 한국어』

이화여대 국제 문화원, 2011 『이화 한국어』

하우출판사 , 2005.09.20 『서강 한국어』

3. 중국원문자료

呂叔湘/朱德熙，中國青年出版社 1979 ,《語法修辭講話》

呂叔湘/朱德熙，遼宁教育出版社 2002 ,《語法修辭講話》

朱德熙, 商務印書館 1980, 《現代漢語語法研究》

_____, 商務印書館，1982年 ,《語法講義》

_____, 上海教育出版社 1984 ,《語法·修 語法修辭講話辭·作文》

_____, 商務印書館，1985 ,《語法答問》

_____, 上海教育出版社 1990 ,《語法叢稿》

陳曉雯, 延邊大學 , 2007-05-25 ,《韓中動詞性定語對比》

王力, 中華書局 1954年 ,《中國現代語法》

_____, 中華書局 1954年 ,《中國語法理論》

_____, 商務印書館 1951年 ,《中國語法理論》

_____, 中國科學院 1955年 ,《關于漢語有无詞類的問題》

ABSTRACT

The study of the teaching method of Korean tense system for Chinese

Bao Wen xiu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has an object in view that searches for effective educational strategies to teach the time expression of grammar in Korean language for Chinese who are completed a chinese grammar course in the chinese

This study is to find out effective ways to study Korean for chinese by comparing and analysis between the tense of chinese, the indicator of action time and the time expression of korean language, assuming that the level of difficulty in learning foreign languages depends on how similar it is between an educatee's own language environment and that of foreign language.

In addition, on the supposed that the medium of education is realized through teaching materials, this study examined if the tense parts of korean textbooks published currently are explained reasonably and exactly. Also, as mistakes were found, this study proposed alternatives and the educational strategies of critical components in korean tense according to the learners' level.

The past tense of korean is realized by the ending of a word,-었-, which can be replaced with the perfect tense, change tense, experience tense. This ending of a word may be used as the present tense by being combined with specific verbs, which is thought to come from the original characteristics of verbs combined with the ending of a word, though the academia think the cause as the properties of the perfect tense in the ending of a word,-었-

This comes from the properties of verbs in Chinese tense, considering that the common properties are found if postpositions combined similar verbs are examined. Moreover, there are tense expressions -었었- which means the break with the past and the ending of determiner, -던, -ㄴ-. When it comes to the usages and alternatives of -더- to represent the past, this study deals with the composition of teaching materials in 4th chapter and matches the way to compose the teaching materials, assuming that detailed explanations are directly connected to the composition of teaching materials.

The present tense of Korean is realized by -는/ㄴ/∅-. In the same manner of the past tense, a particular verb is connected with '-는/ㄴ/∅-', which can represent the future tense and the dual meanings, movement and condition in the present tense. This comes from the properties of verbs.

The future tense of Korean is completed by -겠-, which can be used as guess, conviction, will, schedule, and so forth. Among them, it can be used as future, though, there is an ambiguous part in current descriptions.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 tense can be limited according to the each aspect. In addition, a fair number of korean textbooks for chinese explain that -겠- represents will in the first person and speculations in the third person. However, it is found in the study that this only represents the probability of facts followed by the first person in the existing

textbooks, not an absolute one.

Through this comparison of the tense expressions between Korean and Chinese, the distinct features of Korean tense are examined and the problems of Korean teaching materials for chinese are analyzed according to this standard. At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the alternatives of the composition in teaching materials are proposed using the nonexistent explanations depending on the levels

HANSUNG UNIVERSITY

中文摘要

本論文以在中國的教育体系下攻讀中文語法教育的中國人爲對象，探索韓語時間表現語法的有效教授方案爲目的。本論文認爲，外語學習的難易度跟被教育者的語言环境与其所學語言的相似度有關。本論文通過比較、對比分析中文表示動作的時点－－時態的概念和韓語的時間表現，試圖找出對中國人有效的韓語學習方案的線索。幷且，通過觀察教材中是否准确說明韓語的時態，和有錯誤的地方提出改正方案，幷根据學生的水平，在韓語時態的重要构成要素方面提出有效的教育方案。

韓語的過去時是通過先語末語尾'-었-'來表現的，這可以和中文的完成時態，變化時態和經驗時態互換。這个過去時態先語末語尾与特定動詞結合時，也可以表示現在時態，而不是過去時態。學界想要從先語末語尾'-었-'表示完成的特性中找其原因。本論文認爲，這是与先語末語尾結合的動詞的固有特性導致的。如果觀察中國的時態中与類似的動詞結合的助詞，可以發現共同的特征，這也可以認爲是由動詞的特性所導致的。幷且還有表示与過去斷絶的'-었었-'這一時間表現，冠形詞型語尾'-던','-ㄴ-'。關于表示過去的'-더-'的用法和方案，本論文認爲'-더-'的詳細說明与教材的构成有着直接的聯系。這會在第4章教材构成部分分析，幷和教材构成方案聯系起來。

韓語的現在時態是通過'-는/ㄴ/∅-'來表現的。和過去時態一樣，'-는/ㄴ/∅-'与特定動詞結合也可以表示未來時態。而且某些動詞在現在時態中可以表示動作和狀態這兩种意思。本論文認爲其原因在于動詞的特性。

韓語的未來時態是通過'-겠-'來表現的，'-겠-'含有推測、确信、預期、意志等意思，也用來表示未來。但是，這在目前的叙述中還有模糊的部分。本稿將闡明根据'-겠-'所含有的各种意思，時態也會受限。而且相当一部分以中國人爲對象的韓語教材中，對'-겠-'的說明是'用于第一人称時表示意志，用于第三人称時表示推測'本論文也將闡明，這只是表示在現有的教材中第一人称出現時，'-겠-'表示意志的概率，這一用法幷不是絶對的。

本論文通過對比韓語和中文的時間表現，并觀察韓語時態的特殊現象，來分析以中國人爲對象的韓語教材，最后試圖根据學生的水平，利用現在沒有的說明方法來提出教材构成的方案。

HANSUNG UNIVERSITY